

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의 病證 및 藥理에 대한 研究

朱鍾天**·金敬堯*

A Study on the Diseases and Pharmacy of the Soumin's Sinsooyul-Pyoyul-Byung theory

Jong-Cheon Joo, Kyung-Yo Kim

Dept. of Oriental Medicine of Wonkwang University, Iksan, Korea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rrange the diseases, principal medicinal substances and the prescriptions for the Soumin's Sinsooyul-Pyoyul-Byung (少陰人 腎受熱表熱病) by historical examination in the viewpoint of the Constitutional Medicine (四象醫學).

In this study, first I collected the original texts of the diseases and prescriptions in Dongyi-Soose-Bowon (東醫壽世保元), and described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Soumin (少陰人)'s diseases and prescriptions by comparing with the contents in Dongyi-Soose-Bowon (東醫壽世保元). Next, I collected the efficacy of the medicinal substances and prescriptions by the examination of successive literatures referred it, and tried to explain the efficacy of each medicinal substances in the viewpoint of the Constitutional Medicine (四象醫學) by the analysis of successive literatures.

As a result, the conclusions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Differentiation of Syndromes (辨證) in the Existing Medicine (既存醫學) was formed

*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 원광대학교 광주원광병원

- according to the Eight Principal Syndromes(八綱), the Five Elements(五行), the Meridian system(經絡), therefore there were many confusions with the changes of the times. The differentiation of Syndromes(辨證) in the Constitutional Medicine(四象醫學) was formed according to the pathological change of Ascending and Descending Yin Yang(陰陽升降) in the Four Internal Organs(四臟), therefore, there was the consistency in the recognition of diseases.
2. The classification of the Soumin's Pyoyul-Byung(少陰人 表熱病) was divided into Yukuang Disease(鬱狂證) and Mangyang Disease(亡陽證) according to sweating or not. The conception of these diseases was mostly achieved in Shanhanlun(傷寒論). The treatment of Shanhanlun(傷寒論) was alike to that of Dongyi-Soose-Bowon(東醫壽世保元) in a part.
 3. Je ma, Lee thought that the cause of the Soumin's Pyoyul-Byung(少陰人 表熱病) is the breakdown of the balanced equilibrium in ascending and descending Yin Yang(陰陽升降) for a Large Sin and a Small Bi(腎大脾小), and it is treated by warming and ascending Yang(溫補升陽).
 4. The medicinal substances composing prescriptions for the Soumin's Pyoyul-Byung(少陰人 表熱病) is characterized with the efficacy of Ascending Yang and supplying Qi(升陽益氣) and regulating the digestive organs with the efficacy of warming it.
 5. The medicinal substances composing the prescriptions for the Soumin's Pyoyul-Byung(少陰人 表熱病) is divided into four parts with the state of Yang Qi(陽氣) in the disease it used.
 6. The purpose of prescriptions for the Soumin's Pyoyul-Byung(少陰人 表熱病) is to strengthen the Soumin(少陰人)'s Yangnan Qi(陽暖之氣). Je ma, Lee kept the principle not to mix with another constitution's medicinal substances in the creation of the prescription.

I. 緒 論

現社會와 韓醫學系에서는 四象醫學에 대한 關心이 점점 높아가고 있으며, 體質別 病證, 藥材, 處方を 비롯하여 四象醫學 全般에 대한 具體적이고 客觀적인 資料와 研究가 더욱 精實해지고 있다. 1894년에 『東醫壽世保元』이 著述된 以後로 四象醫學에 대한 많은 研究가 있었으며 많은 書籍들이 出刊되었으나, 各 體質에 따른 藥材와 處方에 대한 자료는 아직도 充分치 못한 것이 현실이다. 既存 四象醫學 處方들의 概念 定立과 새로운 處方の 설정을 위해서 四象醫學의 最古 原典이라고 할 수 있는

『東醫壽世保元』을 歷代文獻들과 함께 되짚어 봄으로써 李濟馬의 製方 意圖를 정확히 이해하고, 四象處方에 관한 認識의 역사를 짚어보는 것이 充分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東醫壽世保元』과 歷代文獻의 關聯性을 少陰人 病證論에서 引用된 文獻들의 頻度數를 통해 살펴보면, 總 82개의 引用文중에서 49個(59.8%)의 引用文이 『傷寒論』에서 提示된 것이며, 『東醫壽世保元』에서 引用된 處方 및 新正處方 66個중에서 23個(34.8%)의 處方이 『傷寒論』에서 提示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少陰人 病證論에서 引用된 文獻數만 해도 10가지 以上이며, 모든 體質을 통틀어 보자면

22가지의 文獻이 『東醫壽世保元』에서 引用되고 있다¹⁾. 이것만 보더라도 『東醫壽世保元』이 既存醫學과 동떨어진 著述이 아니라 『傷寒論』을 비롯한 수십여가지의 文獻들에 기반을 두고 발전적으로 창조된 著述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研究에서는 『東醫壽世保元』에서 언급된 病證, 藥材, 處方 引用文들의 原典을 찾아 정리하고, 이를 다시 『東醫壽世保元』의 內容과 比較하여 病證과 處方들의 發展過程을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여러 體質의 病證 중 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을 中心으로 『傷寒論』, 『東醫寶鑑』, 『醫學入門』 등의 文獻 調査를 통해 少陰人 鬱狂證과 亡陽證의 認識 過程을 論하고자 한다. 또, 多用되는 藥材의 效能을 歷代의 本草 關聯 文獻 調査를 통해 수집하고, 그 藥材가 君藥으로 쓰인 處方の 主治症을 모아 이를 分析함으로써 各 藥材의 四象醫學의 效能과 各 處方の 四象醫學의 方解를 시도하였다. 이 研究를 통해 少陰人 表病證 處方の 構成 原理를 精確히 理解하고, 病證과 藥理를 상세히 밝히고자 하였다.

II. 本 論

1. 少陰人 腎受熱表熱病的 病理

少陰人의 病理를 밝힌 기여도에 관해 『東醫壽世保元』에서 '소음인의 병증약리(病證藥理)는 장중경이 거의 상세하게 밝혔으나, 송·원·명의 모든 의학

자들이 거의 완벽할 만큼 자세하게 밝혔다'²⁾ 라고 하여 張仲景을 少陰人 病理를 밝히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다. 他 體質에 비해 病證藥理가 비교적 자세히 밝혀진 少陰人은 下焦蓄血證을 비롯하여 病證의 대부분을 『傷寒論』에서 확인할 수 있다.

李濟馬는 少陰人 病理의 문제를 少陽人 病理와 마찬가지로 陰陽升降의 失調에서 기인한다고 하였다. 少陰人 病理에 관하여 『東醫壽世保元』에서는 다음과 같이 言及하였다.³⁾

[6-12] 張仲景所論 下焦血證 卽 少陰人 脾局陽氣 爲寒邪所掩抑而 腎局陽氣 爲邪所拒 不能直升連接於脾局 鬱縮膀胱之證也. …… 此證 益氣而升陽則 得上策也 破血而解熱則 出於下計也.

[9-8] 張仲景所論 少陽病 …… 少陽人 腎局陰氣 爲熱邪所陷而 脾局陰氣 爲熱邪所壅 不能下降連接於腎局而 凝滯 膠固 膠固之病也. …… 此證 清裡熱而 降表陰則 痰飲自散而 結胸之證 預防不成也 清痰而燥痰則 無益於陰降 痰散延拖 結胸將成而 或別生奇證也.

[9-32] 亡陽者 陽 不上升而 反爲下降則 亡陽也. 亡陰者 陰 不下降而 反爲上升則 亡陰也.

少陰人과 少陽人의 病理에 대하여 金⁴⁾은 '少陰人, 少陽人의 病理는 陰陽升降의 문제로 보았으며, 太陰人, 太陽人의 病理는 呼散·吸聚의 문제로 보

1) 朴性植·宋一炳: 四象醫學의 學術的 淵源과 李濟馬 醫學思想에 대한 研究, 四象醫學會誌 5(1) : 7-39, 1994.
2)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p. 354, 355, 442, 1997.
"少陰人 病證藥理 張仲景 庶幾乎昭詳發明而 宋元明諸醫 盡乎昭詳發明 ……."
3)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上揭書, p. 444, 465, 467.
4) 金鍾悅: 太陰人 肝受熱裏熱病論을 통해 살펴본 過去醫學과 東醫壽世保元의 陰陽觀의 差異, 四象醫學會誌 9(1) : 127-153, 1997.

았다. 少陰人은 陽氣가 寒邪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고 膀胱에 鬱縮되는 증세와 이보다 陽氣가 더욱 손상되어 올라가야 할 陽氣가 거꾸로 下降하는 亡陽證이 있고, 少陽人은 陰氣가 熱邪때문에 내려가지 못하고 間에 囚滯되는 증세와 이보다 陰氣가 더욱 손상되어 내려가야 할 陰氣가 거꾸로 上升하는 亡陰證이 있다. 이와 같이 病證을 논할 때에도 少陰人, 少陽人은 철저하게 陰陽升降만으로 病理 分析을 하였다.' 라고 하여 少陰人 病理를 陽氣不升의 문제로 보았으며, 汗出의 有無에 따라 鬱狂證과 亡陽證으로 구분하였다. 鬱狂證과 亡陽證 各各에 대한 文獻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鬱狂證

(1) 『傷寒論』⁵⁾

- [111] 太陽病不解 熱結膀胱 其人如狂 血自下 下者愈 其外不解者 尙未可攻 當先解外 外解已 但小腹急結者 乃可攻之 宜桃仁承氣湯.
- [131] 太陽病 六七日 表證仍在 脈微而沈 反不結胸 其人發狂者 以熱在下焦 少腹當硬滿 小便自利者 下血乃癒 所以然者 以太陽隨經瘀熱在裡故也 抵當湯主之.
- [132] 太陽病 …… 小便自利 其人如狂者 血證諦也 抵當湯主之.
- [151] 婦人中風 發熱惡寒 …… 語者 此爲熱入血室也.
- [153] 婦人傷寒 發熱 經水適來 晝日明了 暮即語 如見鬼狀者 此爲熱入血室 無犯胃氣及上二焦 必自癒.

(2) 『東醫壽世保元』⁶⁾ 「少陰人腎受熱表熱病論」

[6-11] …… 其人如狂者 腎陽困熱也 小腹硬滿者 大腸 寒也. …… 腎陽困熱則 …… 升補之 大腸 寒則 …… 和解之 …….

[6-12] 張仲景所論 下焦血證 卽 少陰人 脾局陽氣 爲寒邪所掩抑 而腎局陽氣 爲邪所拒 不能 直升連接於脾局 鬱縮膀胱之證也. …… 此證 益氣而升陽則 得其上策也 破血而解熱 則出於下計也.

위의 條文으로 미루어 볼 때 少陰人의 鬱狂證에 대한 인식은 『傷寒論』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寒邪에 感受되어 數日이 지나게 되면 邪氣가 入裏하게 되어 熱證의 症狀들이 出現한다고 하였는데 寒邪가 入裏하는 部位는 膀胱, 下焦, 血室 등으로 人體의 四焦 中 下焦에 해당되는 部位이므로 陽氣가 不上升하여 腎局에 鬱滯된 少陰人의 鬱狂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治法에 있어서는 張仲景은 桃仁承氣湯, 抵當湯 등으로 破血祛瘀시켰으며, 李濟馬는 升陽益氣의 治法을 사용하였다. 두 醫家의 治法이 差異가 나는 것은 熱證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에서 비롯되는데 張仲景이 '太陽隨經瘀熱在裏'라 하여 邪氣를 위주로 病證을 바라본 반면에, 李濟馬는 위의 條文과 같이 正氣를 위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熱證에 升陽益氣의 治法을 강구하였던 것이다.

腎大脾小한 少陰人이 外邪를 받으면 脾局과 腎局 中 작은 臟器인 脾局이 먼저 손상을 받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少陰人이 外邪를 받아 正氣가 虛弱하여질 경우에 消化器 症狀가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傷寒論』의 '無犯胃氣及上二焦 必自癒'라는 말은 疾病이 있을 지라도 消化器 症狀가 出現

5) 蔡仁植 : 傷寒論譯詮, 서울, 高文社, p. 89, 100, 101, 113, 115, 1991.

6) 전국한의학대학교 사상의학교실 엮음 : 前揭書, p. 444.

하지 않으면 輕病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인데, 이는 少陰人 病證의 상태를 표현한 말로서 少陰人이 外邪에 感受되면 脾局이 가장 먼저 損傷되며 脾局, 즉 消化器의 상태에 의하여 病證의 經過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條文에 體質의인 표현은 없으나 이 條文에 해당되는 病證인 下焦蓄血證이 少陰人 病證에 해당되는 한 근거로 생각할 수 있다.

2) 亡陽證

(1) 『黃帝內經』^{7) 8)}

「金匱真言論」夏暑汗不出者 秋成風溼 此平人脈法也.

「陰陽應象大論」其在皮者 汗而發之.

「脈要精微論篇」…… 陽氣有餘 爲身熱无汗 陰氣有餘 爲多汗身寒 陰陽有餘 則无汗而寒.

「決氣篇」…… 津脫者 理開 汗大泄.

「評熱病論篇」…… 汗者精氣也 …… .

「五禁論」伯曰 形肉已奪 是一奪也. 大奪血之後 是三奪也. 大汗出之後 是三奪也. 大泄之後 …… .

少陰人の 汗出을 亡陽證이라고 하는데, 漢醫學 最古의 文獻인 『黃帝內經』에는 '汗' 이라는 漢字가 다수 나타난다. 內經에서의 汗은 生理的인 均衡의 상태, 病理的인 상태, 發散시키는 治法 등으로 다양하게 서술되고 있다. 『黃帝內經』에서 이야기된 汗을 四象醫學의 觀點에서 파악하여 보면 汗은 精氣의 傳化된 液이므로 이의 손실은 곧 精氣의 損傷이라고 한 少陰人の 汗과 건강한 생리 대사의 표현

이므로 不汗出하면 오히려 疾病이 발생된다고 한 太陰人の 汗 두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2) 『傷寒論』⁹⁾

[31] …… 寸口脈 浮而大 浮卽爲風 大卽爲虛 風卽生微熱 虛卽兩脛攣 病證象桂枝 因加附子 參其間增桂 令汗出 附子 溫經 亡陽故也.

[98] 太陽病 發熱汗出者 此爲 營弱爲強 故使汗出 欲救邪風者 宜桂枝湯.

[22] 太陽病 發汗 遂漏不止 其人惡風 小便難 四肢微急 難以屈伸者 桂枝加附子湯主之.

[223] 陽明病 其人多汗 以津液外出 胃中燥 大便必鞭 鞭卽證語 小承氣湯主之.

[262] 陽明病 發熱汗多者 急下之 宜大承氣湯.

『東醫壽世保元』에서는 亡陽證을 上升해야 할 陽氣가 오히려 下降하여 발생한 病證이라고 하였다¹⁰⁾. 『傷寒論』에서는 亡陽의 病理를 營弱衛強한 桂枝湯證, 太陽病 發汗 隨漏不止한 桂枝加附子湯證, 津液外出胃中燥 大便必硬의 小承氣湯證, 發熱汗多의 大承氣湯證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東醫寶鑑』¹¹⁾ 「內景篇 津液 亡陽證」

凡汗多不止 謂之亡陽 又汗不得出 亦謂之亡陽 …… .

凡汗漏不止 則眞陽脫亡 故謂之亡陽 …… .

凡發汗過多 則陽虛不固 汗出多 …… 桂枝附子湯主之 『醫學入門』

7) 郭霽春: 黃帝內經 素問校注語譯, 서울, 醫聖堂, p. 23, 29, 95, 201, 1993.

8) 郭霽春: 黃帝內經 靈樞校注語譯, 서울, 醫聖堂, p. 260, 405, 1993.

9) 蔡仁植: 前揭書, p. 24, 35, 79, 162, 186.

10)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前揭書, p. 391.

“亡陽者 陽不上升 而反爲下降則 亡陽也. 亡陰者 陰不下降 而反爲上升則 亡陰也 …… .”

11)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p. 125. p. 1994.

汗多亡陽 宜用止汗法.

『醫學入門』에서는 汗出過多와 이에 따르는 汗不得出이 亡陽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治法은 桂枝附子湯을 사용하고 있다. 病證 認識과 治法에서 『傷寒論』과 유사함을 보이고 있다.

『東醫寶鑑』에서는 汗多亡陽에는 止汗法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病理의 裏面보다는 症狀의 해결에 치중하였다고 생각된다.

(4) 『東醫壽世保元』¹²⁾

「少陰人 脾受寒表寒病論」

[9-31] …… 少陰人 雖則冷勝 然 陰盛格陽 敗陽外遁則 煩熱而 汗多也 此之謂 亡陽病也 少陽人 雖則熱勝 然 陽盛格陰 敗陰內遁則 畏寒而 下多也 此之謂 亡陰病也 …….

[9-32] 亡陽者 陽不上升而 反爲下降則 亡陽也 …….

이와 같이 亡陽證은 『黃帝內經』부터 比較的 正確하게 認識하고 있었다. 『黃帝內經』에서는 汗이 人體 精氣의 所産임이 여러 곳에서 敍述되고 있으며 汗의 損失은 人體 精氣의 損失이라는 것을 強調하고 있다. 『傷寒論』에서는 汗出로 인해 亡陽이 發生되며 亡陽은 津液의 外脫 徵候임을 認識하고 있으며, 이로 因한 胃中燥煩實의 여러 症狀를 나열하고 있다.

『東醫壽世保元』과 以前의 文獻들에서 汗出로 因해 發生하는 病證에 대한 認識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體質 概念이 없었기 때문에 少陰人의 汗과 太陰人의 汗을 區分하지 않고 包括적으로

敍述하였다. 亡陰과 亡陽의 概念에 있어서도 陰氣와 陽氣, 營氣와 衛氣, 氣와 血의 包括的인 概念으로 敍述하고 있다. 亡陽의 治法에 있어서는 『東醫壽世保元』유사한 면도 있는데, 『傷寒論』에서는 有汗에 桂枝湯을 사용하며 汗漏不止에 附子 또는 甘草乾薑湯등의 溫補시키는 藥을 사용하고 있으며, 『醫學入門』에서는 溫補之劑를 君藥으로 삼은 桂枝附子湯을 陽虛不固로 因한 多汗證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少陰人과 太陰人의 汗出을 區分하지 않음으로써 發熱汗多者에 一括적으로 大承氣湯을 사용함으로써 少陰人의 경우에는 誤治를 하였다고 볼 수도 있겠다.

亡陽證의 病理인식에 있어서 『東醫壽世保元』에서는 既存의 ‘汗多亡陽 下多亡陰.’ 등으로 표현된 脫氣의 概念에서 陽氣의 正常的인 升降運動 失調로 因한 津液의 外脫로 認識하였다¹³⁾. 『東醫壽世保元』의 亡陽證은 『傷寒論』의 桂枝湯證 및 脾約證에 該當되는데, 桂枝湯證과 陽明病의 汗出이 津液 虛脫의 徵候이므로 初期에는 『傷寒論』의 桂枝湯에 固表止汗의 效能을 가진 黃芪로 津液 虛脫을 防止하며, 末證의 陽明病 發熱汗多者에게는 附子之類를 사용하여 險證으로 빠지는 것을 防止하고자 하였다. 즉 『東醫壽世保元』에 와서야 少陰人의 腎大脾小한 體質的인 特性을 파악하고 陽氣不上升의 病理 認識을 통하여 溫補升陽의 治法을 강구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少陰人 腎受熱表熱病의 藥材 分析^{14) 15)}

分析藥材의 선택은 少陰人 表病證 處方중에서 君

12) 전국한의학대학교 사상의학교실 역음 : 前掲書, p. 467.

13) 張仲景 : 仲景全書, 서울, 大成出版社, p. 122, 141, 220, 230, 239, 1984.

14) 江蘇新醫學院 : 中藥大辭典, 서울, 成輔社, 1982.

15) 金景詩 : 標準本草學, 서울, 進明出版社, 1975.

藥으로 사용되거나 處方의 主治症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藥材을 선택하였다. 川芎桂枝湯에서 桂枝를, 藿香正氣散에서 藿香과 蘇葉을, 芎歸香蘇散에서 川芎과 當歸를, 黃芪桂枝湯에서 黃芪를, 八物君子湯에서 人蔘을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1) 桂 枝

- (1) 東武遺稿 藥性：壯脾而有充足內外之力
- (2) 效能：發汗解肌 溫經通脈
- (3) 主治：風寒表證 肩背肢節痠疼 胸 痰飲 經閉
- (4) 歷代 本草書 敍述〈표 1 참조〉
- (5) 主要 處方〈표 2 참조〉

歷代 本草書에서 桂枝는 風으로 因한 頭身痛을 主治한다고 敍述되고 있다. 『本草備要』에서 桂枝의 效能은 溫經通脈, 發汗解肌라 하였는데, 溫經通脈이란 風寒으로 因한 肢節痛을 해결해 준다는 것이며, 發汗解肌란 寒邪로 因한 身痛에 대한 效能으로 생각된다.

桂枝의 性味는 辛溫하므로 溫性에 의해서 寒의 病變을 극복할 수 있으며, 辛味로는 鬱滯된 病變을 主治할 수 있다. 歷代 本草書의 主治症에서는 循環 障礙의 症狀인 疼, 痛, 痺, 濕, 痰飲, 滯, 閉, 凝, 滯, 寒, 風, 結 등이 많이 나타난다. 桂枝의 效能을 파악하기 위해 桂枝湯과 桂枝加桂湯을 比較해 본다면, 『傷寒論譯典』에서 桂枝湯은 有感, 上衝, 頭

〈표 1〉 歷代 本草書 敍述

時代·醫家·出典	效能 및 主治
金·成無已	泄奔豚 和解肌 散下焦蓄血 利肺氣
金·張元素『醫學啓源』	去傷風頭痛 開理 解表 去皮風濕
明·繆希雍『本草經疏』	實表祛邪 主利肝肺氣 頭痛 風痺骨節攣痛
明·賈九如『藥品化義』	肢節間痰凝血滯
清·汪 昂『本草備要』	溫經通脈 發汗解肌
清·吳儀洛『本草從新』	溫中行血 健脾燥胃 消腫利濕

〈표 2〉 主要 處方

時代·醫家·出典·處方	構 成	主 治
漢·張仲景『傷寒論』 桂枝湯	桂枝3 白芍藥2 甘草1 薑3 棗2	太陽傷風 自汗 惡風寒
漢·張仲景『傷寒論』 桂枝甘草湯	桂枝4 甘草炙2	心悸欲得按
漢·張仲景『傷寒論』 桂枝人蔘湯	桂枝別 甘草炙 各1.8 白朮 人蔘 乾薑 各1.5	傷寒 氣
元·朱震亨『丹溪心法』 桂枝桃仁湯	桂枝 赤芍藥 生乾地黃 酒洗 各2 甘草炙1 桃仁30個 薑3 棗2	月經不通達 臍寒疝痛
明·李『醫學入門』 桂枝附子湯	桂枝 附子炮 各3 白芍藥2 甘草炙1 薑5 棗2	傷寒 發汗過多 遂漏不止 四肢拘急 難以屈伸
明·李『醫學入門』 桂枝紅花湯	桂枝 芍藥 甘草 各1.5 紅花1 薑4 棗2	熱入血室
明·李『醫學入門』 桂枝人蔘湯	桂枝 甘草 各2 人蔘 白朮 乾薑 各1	支結

痛, 發熱惡風, 虛性感冒이며, 桂枝加桂湯은 上衝, 疝症, 奔豚, 頭痛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두 處方 모두 기본적인 虛證의 상태에서 風寒에 感觸되어 寒의 病理인 收蓄의 症狀들이 出現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 桂枝가 增量된 桂枝加桂湯이 鬱蓄된 寒으로 인한 症狀이 인체 上部까지 나타나게 될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桂枝는 寒의 病變을 主治하는 效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桂枝는 鬱滯된 病證을 解肌, 通脈시켜 풀어주는 效能을 가지고 있다. 虛證의 상태에서 症狀의 개선을 위해서 무리하게 發散, 解表시키면 氣血의 損傷이 우려되나 桂枝는 이러한 때에 人體의 生理的인 陽氣를 經脈을 통해 外部 特히 四肢 및 皮膚로 上升시키는 效能이 있어 이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桂枝를 皮膚가 弛緩하여 땀이 잘 나는 陽虛한 體質에 多用할 수 있는 것이다¹⁶⁾. 『東武遺稿』에

서 '壯脾而有充內外之力' 이라고 한 것은 虛證의 경우에 사용하는 桂枝의 效能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총괄적으로 桂枝는 辛溫한 性味로 陽氣를 유도함으로써 虛寒性 鬱蓄 病證을 풀어주는 藥材라 할 수 있으며, 腎大脾小로 陽氣가 上升하지 못하여 氣血이 鬱結된 症狀인 四肢厥冷, 肢體疼痛과 같은 鬱狂證 및 亡陽證의 治療 및 豫防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2) 藿 香

- (1) 東武遺稿 藥性：定氣定魂
- (2) 效能：快氣 調中 酸穢 濕
- (3) 主治：感冒暑濕 寒熱 頭痛 胸院 悶 嘔吐泄瀉 痧疾 痢疾 口臭
- (4) 歷代 本草書 敘述<표 3 참조>
- (5) 主要 處方 <표 4 참조>

<표 3> 歷代 本草書 敘述

時代·醫家·出典	效能 및 主治
漢 『名醫別錄』	療風水毒種 去惡氣 療霍亂 心痛
金·張元素 『珍珠囊』	保衛氣 益胃氣 進飲食 又治吐逆霍亂
宋·蘇頌 『本草圖經』	治脾胃吐逆 爲最要之藥
元·王好古 『湯液本草』	溫中快氣 肺虛有寒 上焦壅熱 飲酒口臭 煎湯
清·劉若金 『本草述』	散寒濕 暑濕 郁熱 濕熱 治外感傷寒 內傷飲食 或飲食冷濕滯 山崩 氣 不伏水土 寒熱作痧等症
清·吳儀洛 『本草從新』	解表散邪 利濕除風 清熱止渴 治嘔吐霍亂 痧 痢 瘡疥 梗：可治喉痺 化痰 止咳嗽血 健脾燥胃 消腫利濕

<표 4> 主要 處方

時代·醫家·出典·處方	構 成	主 治
藿香正氣散	藿香1.5 蘇葉1 白芷 大腹皮 白茯苓 厚朴 白朮 陳皮 半夏製 桔梗 甘草炙 各0.5 薑3棗2	傷寒陰證 身痛不分表裏
四味藿香湯	藿香 人參 橘皮 半夏 各2 薑3	胃虛嘔吐

16) 蔡仁植：前掲書, p. 280.

藿香은 少陰人의 虛寒한 脾胃를 溫하게 하는데 脾小로 因한 上逆을 主治하는 效能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藿香의 快氣, 調中, 酸穢, 濕하는 效能은 消化器의 不調와 관련된 내용인데, 少陰人의 虛寒한 脾胃를 조절하여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藿香과 蘇葉은 『傷寒論』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는데, 當代에 藿香과 蘇葉의 效能이 충분히 認識되지 못하여 이들을 사용한 기존의 處方이 없었기 때문에 『傷寒論』에서도 이들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名醫別錄』의 療霍亂, 『本草圖經』의 脾胃吐逆, 『本草述』의 不服水土, 『本草從新』의 治嘔吐霍亂 등은 藿香이 脾胃虛寒으로 因한 上逆證을 主治한다는 것을 말한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의 處方중에서도 藿香이 君藥으로 쓰인 藿香正氣散과 四味藿香湯은 構成藥材 모두가 溫性을 가진 藥材들로 이루어져 있어 藿香의 效能을 짐작할 수 있으며 특히 四味藿

香湯은 모든 構成藥材가 少陰人의 藥材로 構成되어 있어 少陰人 病證에 응용할 수 있는 處方으로 생각된다.

3) 蘇 葉

- (1) 東武遺稿 藥性：解肌之表邪
- (2) 效能：發表 散寒 理氣 和營
- (3) 主治：感冒風寒 惡寒發熱 咳嗽 氣喘
- (4) 歷代 本草書 敘述 <표5 참조>
- (5) 主要 處方 <표6 참조>

構成蘇葉은 脾胃의 虛寒證과 함께 體表에 寒邪가 鬱滯되어 있을 때 사용하여 溫性으로 脾胃의 虛寒함을 主治하고, 體表에 鬱滯된 寒邪를 辛味로서 發散시켜 풀어주는 藥材로 볼 수 있다. 歷代 本草書에서는 蘇葉의 여러 效能 중 下氣의 效能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日華子本草』의 治心腹脹滿, 『南

<표 5> 歷代 本草書 敘述

時代·醫家·出典	效能 및 主治
漢 『名醫別錄』	主下氣 除寒中
孟 詵	除寒熱 治冷氣
唐·日華子『日華子本草』	補中益氣 治心腹脹滿 止霍亂轉筋 并胃下食 并一切冷氣 止脚氣 通大小腸
宋·蘇頌『本草圖經』	通心經 益脾胃
宋·王介『履岩本草』	止金瘡出血 療痔疾 煎湯洗之

<표 6> 主要 處方

時代·醫家·出典·處方	構 成	主 治
金·朱丹溪『丹溪心法』紫蘇飲子	紫蘇葉 桑白皮 青皮 杏仁 五味子 麻黃 陳皮 甘草 各1, 人參 半夏 各0.6	脾肺虛寒咳嗽痰盛
元·信『古今醫鑑』蘇葛湯	紫蘇葉 乾葛 甘草 各2 白芍藥1.5 陳皮 縮砂 各0.5 薤3	麻疹初發
芎芷香蘇散	陳皮 蘇葉 香附子 川芎 白芷 各1 甘草0.8	四時傷寒發熱頭痛
杏蘇湯	杏仁 蘇葉 桑白皮 陳皮 半夏 貝母 白朮 五味子 各1 甘草0.5 薤5	傷風寒咳嗽痰盛
香蘇散	香附子 蘇葉 各2 蒼朮1.5 陳皮1 甘草0.5 薤3 蔥2	四時傷寒頭身痛 寒熱 傷風 傷濕時氣瘟疫

本草』의 定喉喘, 『本草綱目』의 定喘 등은 蘇葉의 下氣作用을 나타낸 말로 생각된다.

蘇葉이 君藥으로 사용된 處方들은 寒으로 인한 病變을 主治하는데, 이는 蘇葉이 辛味로서 皮膚의 寒邪를 發散시키는 效能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강한 發散劑가 아닌 微發散劑이기 때문에 항상 陽氣의 손상이 염려되는 少陰人에게 적합한 藥材로 생각된다. 『東武遺稿』에서는 蘇葉의 藥性を '解肌之表邪'라 하여 蘇葉의 發散 및 解肌하는 作用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表現하고 있다.

4) 川 芎

- (1) 東武遺稿 藥性：壯脾而有外攘之勢
- (2) 效能：行氣開鬱 風燥濕 活血止痛
- (3) 主治：風冷頭痛眩暈 脇痛腹痛 寒痺筋攣 經閉難產 產後瘀阻塊痛 癰疽瘡瘍
- (4) 歷代 本草書 敘述 <표 7 참조>
- (5) 主要 處方 <표 8 참조>

川芎이 『傷寒論』 및 『金匱要略』에서 사용된 處方의 主治症은 風寒, 風邪, 虛鳴, 婦人, 妊娠 등과 관련된 病證인데 虛證과 血證으로 총괄할 수 있다. 즉 川芎의 效能을 行氣活血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血液에 運動성을 주어 氣運이 돌도록 한다는 말로 생각할 수 있다. 이로써 諸般 風寒과 虛血性 病

變을 主治하는데, 本草 川芎散의 肝虛 眩暈 즉 血虛 眩暈이나, 本經의 寒痺 등은 이러한 處方의 主治症을 表現한 것으로 보인다.

『東武遺稿』에서는 川芎의 藥性を '壯脾而有外攘之勢'라 하였는데, 이는 行氣活血의 效能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少陰人 鬱狂證에 川芎桂枝湯을 사용하는 方義는 桂枝湯의 解肌作用이 鬱狂證의 諸般 症狀을 解決하며 少陰人 腎大脾小의 弱點을 川芎의 補血하는 效能이 解決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東武遺稿』의 藥성에 의해 當歸와 比較해 본다면, 當歸는 內守하고 川芎은 外攘한다고 하였다. 이는 두 藥材 모두 血液을 運行시키는 效能은 유사하나, 川芎의 補血의 效能에 더불어 行氣의 效能이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八物君子湯에는 當歸, 川芎이 포함되어 있으나, 陽氣의 보충이 시급한 때에 사용하는 補中益氣湯에는 川芎이 除外되었다고 생각된다.

5) 當 歸

- (1) 東武遺稿 藥性：壯脾而有內守之力
- (2) 效能：補血和血 調經止痛 潤燥滑腸
- (3) 主治：治月經不調 經閉腹痛 結聚 崩漏 血虛頭痛 眩暈痿痺 腸燥便秘 赤痢後重 癰疽瘡瘍 跌撲損傷

<표 7> 歷代 本草書 敘述

時代·醫家·出典	效能 및 主治
秦·漢 『神農本草經』	主中風入臟頭痛 寒痺 筋攣緩急 金創 婦人血閉無子
陶弘景	齒根出血者 含之多差
唐·日華子『日華子本草』	治一切風 一切氣 一切勞損 一切血 補惡露 壯筋骨 調中脈 破 結宿血 養新血 壯肉 鼻洪 吐血及尿血 痔瘻 腦癰發背 紫 瘡疥 及排膿消瘀血
金·張元素『醫學啓源』	補血 治血虛頭痛
元·王好古	瀉肝氣 補肝血 潤肝燥 補風虛
明·李時珍『本草綱目』	燥濕 止瀉痢 行氣開鬱

〈丑 8〉 主要 處方

時代·醫家·出典·處方	構 成	主 治
秦·漢『本草』川芎散	川芎1 當歸0.75 羌活 旋覆花 芫荽子 細辛 石膏 藁本 荊芥鬚 半夏 熟地黃 防風 甘草 各0.5	頭風眩暈 肝虛而暈尤宜婦人
秦·漢『本草』芎藭湯	川芎 葛根 桂枝 細辛 枳殼 人參 芍藥 麻黃 防風 各1 甘草0.5 薑3	風寒腦痛
漢·張仲景『金匱要略』膠艾湯	川芎 阿膠 甘草 各2兩 艾葉 3兩 當歸 3兩 芍藥 4兩 乾地黃 6兩	婦人有漏下者
漢·張仲景『金匱要略』當歸芍藥散	當歸 3兩 芍藥 1斤 茯苓 白朮 4兩 澤瀉 芎 0.5斤	婦人懷妊 腹中 痛
漢·張仲景『金匱要略』當歸散	當歸 黃芩 芍藥 芎 各1斤 白朮 0.5斤	婦人妊娠 宜常服
漢·張仲景『金匱要略』白朮散	白朮 芎 4分 蜀椒 3分 牡蠣 2分	妊娠養胎
漢·張仲景『金匱要略』酸棗仁湯	酸棗仁 2升 甘草 1兩 知母 芎 各 2兩 茯苓 3兩	虛勞虛煩不得眠
『直指方』芎蘇散	川芎 檳榔 麻黃 肉桂 防己 木通 細辛 白芷 菖蒲 各0.7 木香 川椒 甘草 各0.35 薑3 紫蘇5	鼻塞
『直指方』芎歸飲	川芎 當歸 細辛 各1 桂枝 石菖蒲 白芷 各0.7 薑3 棗2 紫蘇7	風邪入耳虛鳴
明·李『醫學入門』芎芷散	川芎1.5 白芷 蒼朮 陳皮 細辛 石菖蒲 厚朴 半夏 木通 紫蘇葉 桂枝 甘草 各0.7 薑3 蔥2	風入耳虛鳴
宋·嚴用和『濟生』芎蘇散	川芎 紫蘇葉 白芍藥 白朮 麥門冬 陳皮 乾葛 各1 甘草0.5 薑5 蔥3	妊娠感冒 風寒頭痛 煩熱
元·廷賢『萬病回春』清血四物湯	川芎 當歸 赤芍藥 生地黃 片芩酒炒 紅花酒焙 赤茯苓 陳皮 各1 甘草0.5 薑2 五靈脂1	酒醩
元·危亦林『世醫得效方』芎活湯 明·李時珍『本草綱目』川芎散	川芎 半夏 赤茯苓 獨活 陳皮 枳殼 各1 白朮 甘草 各0.5 薑5 甘菊 石膏 川芎 白蠶 各6	水飲停注經絡發爲臂痛 偏頭痛

(4) 歷代 本草書 敘述 〈표 9 참조〉

(5) 主要 處方 〈표 10 참조〉

當歸는 性味가 苦溫하며, 歸經은 心肝脾이다. 心
은 主血의 臟器이며 脾는 生化之源의 臟器이다. 當

歸의 歸經을 心과 脾라 한 것은 當歸가 血의 運行
과 生成을 調節하는 藥材임을 말한 것으로 생각된
다. 그러므로 腎大脾小한 臟器 構造를 가지고 있어
脾臟의 生化之源이 不足하기 쉬워 氣血虛證이 惹起
될 수 있는 少陰人에게 補氣血하는 藥材로 多用될

〈丑 9〉 歷代 本草書 敘述

時代·醫家·出典	效能 및 主治
秦·漢『神農本草經』	主咳逆上氣 溫柝寒熱洗洗在皮膚中 婦人漏下 絕子 諸惡瘡瘍金瘡 煮飲之
漢『名醫別錄』	溫中止痛 諸客血內塞 中風痙 汗不出 濕痺 中惡客氣 虛冷 補五臟 生肌肉
唐·日華子『日華子本草』	治一切風 一切血 補一切勞 破惡血 養新血及主 癖
金·張元素『珍珠囊』	頭破血 身行血 尾止血
金·李	當歸梢 主 癖 破惡血 并產後惡血上庶 去諸瘡瘍腫結 治金瘡惡血 溫中潤燥止痛
元·王好古	主 嗜臥 足下熱而痛 庶脈爲病 氣逆裏急 帶脈爲病 腹痛 腰溶溶如坐水中
明·陳嘉謨『本草蒙筌』	逐跌打血凝 并熱痢括疼滯住臟胃內
明·李時珍『本草綱目』	治頭痛 心腹諸痛 潤腸胃筋骨皮膚 治癰疽 排膿止痛 和血補血
清·吳儀洛『本草從新』	治渾身腫脹 血脈不和 陰分不足 安生胎 墮死胎

<丑 10> 主要 處方

時代·醫家·出典·處方	構 成	主 治
漢·張仲景『傷寒論』當歸四逆湯	當歸 桂枝 芍藥 3 細辛 甘草 通草 2 棗 8	手足厥寒 脈細欲絕者
漢·張仲景『金匱要略』芎歸膠艾湯	川芎 阿膠 甘草 2 艾葉 當歸 3 芍藥 4 乾地黄 5	婦人有漏下者
漢·張仲景『金匱要略』當歸芍藥散	當歸 川芎 2 茯苓 白朮 2 澤瀉 1.5 芍藥 3	婦人懷娠 腹中 痛
漢·張仲景『金匱要略』當歸散	當歸 黃芩 芍藥 川芎 白朮 10兩	婦人妊娠 宜常服
宋『太平惠民和劑局方』四物湯	熟地黄 當歸 川芎 白芍藥 各等分	諸血病 治衝任虛損 血虛血滯 月經不調 崩中漏下 血下怪經
宋·許叔微『本事方』當歸散	當歸 川芎 白芍藥炒 黃芩炒 各1 白朮 0.5	婦人天癸已過其經脈不勻 或三四月不行 或一月再至腰腹疼痛
元·李『東垣十種醫書』 當歸芍藥湯	蒼朮 白朮 當歸 白芍藥 各1.5 黃 1 陳皮 熟地黄 各0.5 炙甘草 生地黃 各0.3 柴胡0.2	經漏不止 氣弱困倦
明·信『古今醫鑑』當歸地黄湯	當歸 熟地黄 生地黃 白芍藥炒 白朮 白茯苓 黃 蜜炙 各1 黃柏 知母 陳皮 各0.8 人參0.5 甘草0.3 棗1	盜汗氣血兩虛
明·虞搏『醫學正傳』當歸地黄湯	當歸 地黄 芍藥 川芎 藥本 防風 白芷 各1 細辛0.5	亡血過多
明·廷賢『萬病回春』當歸活血湯	當歸 赤芍藥 川芎 桃仁 各1 牡丹皮 香附子 烏藥 枳殼 青皮 各0.8 紅花0.5 桂皮 乾薑 甘草 各0.3 蔗3	血鬱
明·李時珍『醫學綱目』當歸四逆湯	當歸1.2 附子 肉桂 茴香 各1 白芍藥 柴胡 各0.9 玄胡索 川子 茯苓 各0.7 澤瀉0.5	寒疝臍下冷痛

수 있는 것이다.

歷代 本草書의 當歸의 效能 및 主治症 중 婦人漏下, 主女子崩中, 一體血, 養新血이라고 한 것은 當歸를 血虛에 사용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며, 咯血內塞, 破宿血, 破惡血, 頭破血, 逐打撲血凝, 血脈不和 등에서 알 수 있듯이 補血의 作用이 血虛 疾患에만 국한되지 않고 血虛로 인하여 발생하는 二次的인 疾患에도 活血, 行血, 破血의 效能으로 이를 主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歷代의 文獻에서 當歸가 君藥으로 사용된 處方의 主治症을 살펴보면, 經漏不止, 盜汗氣血兩虛, 亡血過多 등으로 血虛病證에 補血하는 效能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宿血, 血凝, 血脈不和 등은 血虛에서 비롯되는 二次的인 病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를 主治하는

當歸는 補血하는 效能과 더불어 活血, 行血, 破血의 效能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當歸의 藥性을 『東武遺稿』에서는 壯脾而有內守之力이라고 하였는데 川芎의 外攘之力이 補血과 行氣의 作用을 겸비한 것이라면, 當歸의 內守之力은 行氣의 作用보다는 補血의 作用에 置重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 黃 芪

- (1) 東武遺稿 藥性: --
- (2) 效能: 生用- 益衛固表 利水消腫 托毒生肌, 炙用- 補中益氣
- (3) 主治: 生用- 自汗 盜汗 血痺 浮腫 癰疽不潰 或 潰久不斂, 炙用- 內傷勞倦 脾虛泄瀉 脫

肛 氣虛血脫 崩帶 及 一切 氣衰血虛之症

(4) 歷代 本草書 敘述 <표 11 참조>

(5) 主要 處方 <표 12 참조>

黃芪는 張仲景의 『傷寒論』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金匱要略』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黃芪의 主治症은 『金匱要略』의 여러 處方들 중 黃 健中湯에서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데, 虛勞裏急 諸不足이 주된 主治症이며, 더불어서 氣虛證이 基本的으로 內在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自汗, 頭痛, 發熱 등에도 사용하

다는 것을 金 要略 以後의 여러 文獻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本經』이후 癰疽를 治療하는 法에 있어서 黃芪를 쓴 것도 氣虛가 原因인 癰疽를 補托으로서 治療하기 위한 것이었다. 明 陳實功의 補托論과 世 醫得效方의 黃芪 六一湯이 여기에 해당된다.

黃芪는 當歸 등과 함께 升陽益氣藥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固表에 의한 止汗의 作用이 있다는 점이다.

汗出을 既存醫學에서는 衛氣가 虛한 상태라고 하였으며, 四象醫學에서는 陽氣의 亡失 상태라고 하였

<표 11> 歷代 本草書 敘述

時代·醫家·出典	效能 및 主治
秦·漢 『神農本草經』	主癰疽 久敗瘡排膿 止痛 大風癩疾 逐五痔鼠萎補虛小兒百病
漢 『名醫別錄』	主婦人子臟風邪氣 逐五臟間惡血 補臟腑虛損 五勞 瘦 止渴 腹痛 泄痢 益氣 利陰氣
唐·日華子『日華子本草』	黃 助氣長筋骨 長肉補血 破 癰 治 腸風 血崩 帶下 赤白痢 產前後一切病 月候不勻 消渴 痰嗽 并治頭風 熱毒 赤目等 白水：排膿治血 及煩悶 熱毒 骨蒸勞 功次黃 赤水：治血 退熱毒 余共用并同上 木氣治煩 排膿力微于黃 遇結卽倍用之
金·張元素『醫學啓源』	治血勞自汗 補肺氣 賁皮毛 瀉肺中火 脈弦自汗 先治脾胃虛弱 內托陰證瘡瘍 必用之藥
王好古	主大陰痞疾

<표 12> 主要 處方

時代·醫家·出典·處方	構 成	主 治
漢·張仲景『金匱要略』黃芪健中湯	桂枝去皮 3兩 甘草炙 2兩 大棗 12枚 芍藥 6兩 生薑 3兩 膠飴 1升 黃芪 1.5兩	虛勞裏急 諸不足
漢·張仲景『金匱要略』防己黃芪湯	防己 1兩 甘草炒 0.5兩 白朮 0.75兩 黃芪去蘆 1.01	風濕脈浮身重 汗出惡風者
漢·張仲景『金匱要略』桂枝加黃芪湯	桂枝 3兩 芍藥 3兩 甘草 2兩 生薑 3兩 大棗 12枚 黃芪 2兩	黃汗之病
元·危亦林『世醫得效方』黃 六一湯	黃芪蜜炙6 甘草炙1	癰疽煩渴
明·廷賢『萬病回春』黃 益氣湯	黃芪蜜炙1 人蔘 白朮 半夏製 陳皮 各0.7 當歸酒洗 川芎 藜本 甘草 各0.5 黃柏酒炒 升麻 細辛 各0.5 薑3 棗2	氣虛頭痛
明·朱權『活人心方』黃 湯	黃芪 2 人蔘 甘草 各1 當歸0.5 五味子9粒	氣虛發熱 心常煩悸
元·王好古『海藏書』黃 湯	人蔘 白朮 白茯苓 甘草 黃芪 白芍藥 各1 薑3	中噎脈虛
元·李『東垣十種醫書』黃 湯	黃芪 2 人蔘1 甘草炙0.5	漫驚風大便泄青色
元·李『東垣十種醫書』補中益氣湯	黃芪 1.5 人蔘 白朮 甘草 各1 當歸身 陳皮 各0.5 升麻 柴胡 各0.3	勞役太甚 飲食失節 身熱自汗

<표 13> 歷代 本草書 敘述

時代·醫家·出典	效能 및 主治
秦, 漢 『神農本草經』	主補五藏 安精神 止驚悸 除邪氣 明目 開心益智
漢 『名醫別錄』	療腸胃中冷 心腹鼓痛 胸肋逆滿 亂吐逆 調中 止消渴 通血脈 破堅積 令人不忘
唐·日華子 『日華子本草』	調中治氣 消食開胃
金·張元素 『珍珠囊』	養血 補胃氣 瀉心火
金·張元素 『醫學啓原』	治脾胃陽氣不足及肺氣促 短氣 少氣 補中緩中 瀉肺脾胃中火邪
明·蘭茂 『滇南本草』	治陰陽不足 肺氣虛弱
明·陳嘉謨 『本草蒙筌』	定喘嗽 通暢血脈 邪陰火 滋補元陽
明·李時珍 『本草綱目』	治男婦一切虛證 發熱自汗 眩暈頭痛 反胃吐食 痞疾 消渴久痢 小便頻數 淋瀝 勞倦內傷 中風 中暑 吐血 嗽血 下血 血淋 血崩 胎前產後諸病

다. 黃芪桂枝湯의 主治症인 亡陽證의 自汗은 陽氣가 邪氣를 이기지 못하고 밖으로 도망하는 危急한 症勢인데, 黃芪는 陽氣를 끌어올려 줌으로써 밖으로 外泄되는 陽氣를 붙잡아 두는 藥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效能 때문에 亡陽證에 사용하는 八物君子湯과 補中益氣湯에서 人蔘과 黃芪가 同一한 用量으로 쓰이고 있으며, 그 중 氣血虛의 상태에 사용하는 八物君子湯에서는 人蔘과 黃芪를 1錢씩 사용하나, 陽氣가 손상된 비교적 重한 病證에 사용하는 補中益氣湯에서는 人蔘과 黃芪를 3錢으로 增量하는 것에서 黃芪의 效能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총괄적으로 黃芪는 既存醫學에서 衛氣가 弱해서 오는 自汗을 主治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에서 少陰人 亡陽汗에 응용되는 약재로 파악할 수 있다. 이 二의 衛氣虛는 少陰人의 脾陽虛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黃芪는 脾陽을 強化하는 藥이라고 할 수 있다.

7) 人 蔘

- (1) 東武遺稿 藥性: 補脾和脾
- (2) 效能: 大補元氣 固脫生津 安神

- (3) 主治: 勞事虛損 消食 倦怠 反胃吐食 大便滑泄 虛咳喘促 自汗暴脫 驚悸 健忘 眩暈頭痛 陽萎 尿頻 消渴 婦女崩漏 一切氣血津液不足症
- (4) 歷代 本草書 敘述 <표 13 참조>
- (5) 主要 處方 <표 14 참조>

歷代文獻의 人蔘에 대한 서술은 『神農本草經』의 主補五藏, 『醫學啓原』의 治脾胃陽氣不足及肺氣不足, 『滇南本草』의 治陰陽不足, 『本草綱目』의 治男婦一切虛證 등이 있다. 조¹⁷⁾는 '人蔘은 少陰人의 表裏證을 막론하고 모두 사용되나, 단지 解鬱만으로 升陽이 이루어지는 症과 陰實之氣의 解消에 사용하는 寬中湯類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즉 人蔘은 가장 적극적인 升陽의 방법이며 保命之柱의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다' 라고 하였는데, 人蔘이 陽氣를 補하고 升陽의 主藥이 됨을 말한 것이며, 鬱이란 桂枝, 香附子, 蘇葉, 蒼朮, 生薑 等の 藥材로 主治되는 病證을 말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人蔘은 津液을 補充하는 效能을 가지고 있다. 歷代 本草書에 人蔘은 생것은 性이 微溫 또는 涼하다고 말하고 있다. 止渴生津이라는 人蔘의

17) 조황성: 四象方劑 構成의 分析研究, 四象醫學會誌 7(2) : 21-44, 1995.

〈丑 14〉 主要 處方

時代·醫家·出典·處方	構 成	主 治
漢·張仲景『金匱要略』白虎加人蔘湯	知母 6兩 石膏 1斤 甘草 2兩 粳米 6合 人蔘 3兩	太陽中熱者 是也 汗出惡寒 身熱而渴 渴欲飲水 口乾舌燥者
漢·張仲景『金匱要略』人蔘湯	人蔘 甘草 乾薑 白朮 3兩	胸痺心中 留氣 氣結在胸 胸滿 脅下逆搶心
漢·張仲景『金匱要略』半夏瀉心湯	半夏 0.5升 黃芩 乾薑 人蔘 炙甘草 3兩 黃連 1兩 大棗 12枚	嘔而腸鳴 心下痞滿者
漢·張仲景『傷寒論』理中湯	人蔘 白朮 乾薑 各2, 甘草炙1	治太陰病
宋·『太平惠民和劑局方』四君子湯	人蔘 白朮 白茯苓 甘草 各1.2	治營衛氣虛 臟腑怯弱
宋·『太平惠民和劑局方』 蔘苓白朮散	人蔘 白朮 白茯苓 山藥 甘草炙 郁李仁 蓮肉 桔梗 砂仁 白扁豆 各1.5	大病後調理脾胃
蔘朮健脾湯	人蔘 白朮 白茯苓 厚朴 陳皮 山查肉 各1 枳實 白芍藥 各0.8 砂仁 神麩 麥芽 甘草 各0.5 薑3 棗2	健脾養胃運化飲食
八物湯	人蔘 白朮 白茯苓 甘草 熟地黃 赤芍藥 川芎 當歸 各1.2	氣血兩虛
蔘芪湯	人蔘 黃芪蜜炙 當歸 生地黃 白芍藥酒炒 白茯苓 白朮 各1 升麻 桔梗 陳皮 乾薑 各0.5 甘草炙0.3	肛門虛寒脫出
建理湯	人蔘3-5 乾薑暑桂枝 各2 白朮 白芍藥 各1 甘草炙0.5	脾胃虛冷 積聚氣上心腹

效能은 人體에서 病理的으로 發生할 수 있는 諸般 熱리 因한 疾患에 사용되어 津液을 生成하여 준다 는 것이다.

張元素는 '瀉心火' 또는 '生津液'이라 하였으며, 『金 要略』에서는 白虎加人蔘湯의 主治症을 '渴欲飲水 口乾舌燥'라 한 바 있는데, 이들은 生津하는 人蔘의 效能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少陰人 病證에서는 腎陽困熱한 鬱狂證에 下焦의 鬱結로 熱이 發生되며, 熱은 津液을 灼傷하는데, 이 때에 人蔘을 사용하면 損傷된 津液이 補充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3. 少陰人 腎受熱表熱病의 處方

1) 芎歸香蘇散

(1) 『太平惠民和劑局方』¹⁸⁾「傷寒篇」

香蘇散 治四時瘟疫傷寒 形寒身熱 頭痛無汗 胸膈悶 不思飲食方.

陳皮 二兩 香附子炒 去毛 紫蘇葉 各 四兩 甘草炙 一兩.

右爲粗末 每服三錢 水一 盞煎 七分 去滓熱服 不拘時 日三服 若作細末 只服二錢 入鹽點服.

當有 白髮老人 授此方與一富人家 其家合施 當大疫 城中病者 皆愈 其後疫鬼問富人 富人以寶告鬼曰 此老教三人矣 稽顙而退.

18) 宋 太平惠民和劑局 編, 劉景源 點校: 太平惠民和劑局方, 중국, 人民衛生出版社, p. 62, 1985.

(2) 『世醫得效方』¹⁹⁾ 「傷寒 和解篇」

香蘇散 治四時傷寒 傷風 傷濕 傷食方 大人小兒皆可服.

香附子 五兩 紫蘇葉去根 二兩半 陳皮 甘草 蒼朮 米泔浸 炒黃 各 二兩.

爲粗末 每服 四錢 加生薑 三片 蔥白 二根 水煎 不拘時服 得頭汗爲宜.

(3) 『醫學入門』²⁰⁾ 「傷寒用藥賦」

香附 紫蘇 各 2錢 陳皮 1錢 甘草 5分 薑蔥煎 服取汗.

治四時感寒 頭疼 發熱惡寒 如頭痛時 加川芎 白芷 無汗 加麻黃.

(4) 『東醫寶鑑』²¹⁾ 「瘟疫篇 瘟疫治法」

香蘇散 治四時瘟疫 香附子 三錢 紫蘇葉 二錢半 陳皮 一錢半 蒼朮 甘草 各 一錢.

右剉作一貼 入薑 三 蔥白 二 水煎服 『世醫得效方』

昔有 白髮老人 授此方與 一富人家 令其合施城中 大疫病者 服此 皆愈疫鬼 問富人富人以實告鬼曰 此老教三人矣 稽 而退. 『太平惠民和劑局方』

「雜病篇 傷寒表證」

香蘇散 治四時傷寒 頭痛 身疼 發熱惡寒 及傷風 傷濕 傷寒 時氣瘟疫.

香附子 紫蘇葉 各 二錢 蒼朮 一錢半 陳皮 一錢 甘草灸 五分 右 作一貼 入薑三片 白二莖 水煎服 『醫學入門』

(5) 『東醫壽世保元』²²⁾

「少陰人腎受熱表熱病論」

[6-3] 危亦林 得效方 曰 四時瘟疫 當用香蘇散.

[6-5] 論曰 張仲景所論 太陽傷風 發熱惡寒者 卽少陰人 腎受熱 表熱病也. 此證 發熱惡寒而無汗者, 當用 桂枝湯 川芎桂枝湯 香蘇散 芎歸香蘇散 藿香正氣散 …… .

「宋元明 三代醫家 著述中 少陰人病 經驗行用要藥 十三方 巴豆藥 六方」

香蘇散 香附子 3錢 紫蘇葉 2錢5分 陳皮 1錢5分 蒼朮 甘草 各 1錢 薑 3片 蔥白 2莖.

此方 出於危亦林得效方書中 治四時瘟疫.

局方曰 昔有一老人 授此方 與一人 令其合施 城中 大疫 服此皆愈.

「新定 少陰人病 應用要藥 二十四方」

芎歸香蘇散 香附子 2錢 紫蘇葉 川芎 當歸 蒼朮

<표 15> 香蘇散의 藥材構成 및 用量的 文獻別 變化

文 獻	構 成
『太平惠民和劑局方』	香附 蘇葉 4 陳皮 2 甘草 1
『世醫得效方』	香附 5 蘇葉 2.5 陳皮 甘草 蒼朮 2 生薑 3 蔥白 2
『東醫寶鑑』의 『世醫得效方』	香附 3 蘇葉 2.5 陳皮 1.5 甘草 蒼朮 1 生薑 3 蔥白 2
『東醫寶鑑』의 『醫學入門』	香附 蘇葉 2 陳皮 1 甘草 0.5 蒼朮 1.5 生薑 3 蔥白 2
『東醫壽世保元』香蘇散	香附 3 蘇葉 2.5 陳皮 1.5 甘草 蒼朮 1 生薑 3 蔥白 2
『東醫壽世保元』芎歸香蘇散	香附 2 蘇葉 陳皮 甘草 蒼朮 1 生薑 3 蔥白 5 當歸 1 川芎 1

19) 危亦林: 世醫得效方, 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14, 서울, 大星文化史, 1995.

20) 李: 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pp. 177-178, 1981.

21) 許浚: 前揭書, p. 386, 526. ||

22)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역음: 前揭書, p. 444, 458, 461.

〈표 16〉 『東醫壽世保元』 芎歸香蘇散을 構成하는 各 藥材의 性味

藥 材	性 味		藥 材	性 味		藥 材	性 味	
香附子	甘	微寒	甘 草	甘	溫	葱 白	辛	溫
蘇 葉	辛	溫	蒼 朮	苦	溫	當 歸	甘辛	溫
陳 皮	辛甘	溫	生 薑	辛	溫	川 芎	辛苦香	溫

陳皮 甘草炙 各1錢 白 5莖 薑 3片 棗 2枚.

香蘇散의 藥材構成 및 用量的 文獻別 變化는 표 1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東醫壽世保元』 芎歸香蘇散을 構成하는 各 藥材의 性味를 表로 만들면 표 16과 같다.²³⁾

香蘇散이 언급된 最古 文獻은 宋代의 『太平惠民和劑局方』이며, 四時瘟疫 등에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世醫得效方』, 『醫學入門』, 『東醫寶鑑』 등에서는 四時瘟疫과 傷寒, 傷風, 傷濕, 傷食 등에 사용하며 大人과 小兒를 莫論하고 服用할 수 있다고 하였다.

歷代文獻에서 자주 언급한 四時瘟疫이란 疫 의 邪를 感受하여 發生하는 多種類의 急性傳染病을 通稱한다²⁴⁾. 危亦林은 『太平惠民和劑局方』의 香蘇散에 蒼朮, 生薑, 白을 첨가하여 『東醫壽世保元』 香蘇散에 가깝게 구성을 이루었는데, 이는 四時不正之氣가 鬱結하여 이루어지는 瘟疫을 主治하기 위함이었다²⁵⁾.

芎歸香蘇散을 少陰人 表病證의 處方으로 설정한 것은 香蘇散이 대부분 溫性을 가진 藥材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脾胃를 따뜻하게 하는 작용과, 腎大脾小의 臟局으로 冷해지기 쉬운 少陰人의 病理를 조절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當歸, 川芎을 본래의 香蘇散에 加味한 것은 少陰人의 臟局이 腎大脾小하여 既存醫學에서 말하는 陰

虛, 血虛, 內熱 등의 病證이 쉽게 誘發될 수 있으며, 瘟疫 및 傷寒의 發熱로 인해 津液의 損傷이 자주 유발되기 때문이었다.

2) 川芎桂枝湯

桂枝湯 桂枝 3錢 芍藥 2錢 甘草 1錢 薑 3片 棗 2枚

川芎桂枝湯 桂枝 3錢 芍藥 2錢 川芎 蒼朮 陳皮 甘草炙 各1錢 薑 3片 棗 2枚

(1) 『傷寒論』²⁶⁾

[1] 太陽之爲病 其脈浮 頭項強痛而惡寒.

[2] 太陽病 發熱 汗出 惡風 脈緩者 名爲中風.

[3] 太陽病 或已發熱 或未發熱 必惡寒 體痛 嘔逆 脈陰陽俱緊者 名曰傷寒.

[4] 傷寒一日 太陽受之 脈若靜者 爲不傳 顏欲吐 若躁煩 脈數急者 爲傳也.

[13] 太陽中風 陽浮而陰弱 陽浮者 熱自發 陰弱者 汗自出 翕翕惡寒 淅淅惡風 翕翕發熱 鼻鳴乾 嘔者 桂枝湯主之.

[14] 太陽病 頭痛 發熱 汗出 惡風者 桂枝湯主之.

[58] 傷寒 發汗已解 半日許 復煩 脈浮數者 可更發汗 宜桂枝湯.

[16] 太陽病 下之後其氣上衝者 可與桂枝湯 方用

23) 洪淳用·李乙浩: 前掲書, pp. 235-243.

24) 金賢濟·洪元植: 韓醫學辭典, 서울, 成輔社, p. 428, 1983.

25) 韓東錫: 東醫壽世保元註釋, 서울, 誠理會出版社, p. 187, 1967.

26) 蔡仁植: 前掲書, pp. 9-11, 17-22, 55-56, 58.

前法 若不上衝者 不可與之。

- [98] 太陽病 發熱汗出者 此爲營弱爲強 故使汗出 欲救邪風者 宜桂枝湯。
- [54] 病常自汗出者 此乃營氣和 營氣和者 外不諧 以衛氣 不共營氣和諧故爾 以營行脈中 衛外 脈外 復發其汗 營衛和則愈 宜桂枝湯。
- [55] 病人藏無他病 時發熱 自汗出而不愈者 此衛 氣不和也 先其時發汗則愈 宜桂枝湯。
- [18] 桂枝 本爲解肌 若其人 脈浮緊 發熱 汗不出 者 不可與之 常須識此 勿令誤也。

(2) 『東醫寶鑑』²⁷⁾ 「寒 太陽形證用藥」

桂枝湯 治太陽傷風 自汗 惡風寒。

桂枝 3錢 白芍藥 2錢 甘草 1錢 右 作 一貼入 生薑 3片 大棗 2枚 水煎溫服 須臾 稀粥一盞 以助藥力 令遍身 微汗 爲佳得汗勿再服。『入門』

(3) 『醫學入門』²⁸⁾ 「傷寒用藥賦」

解肌 微汗也 風傷衛 衛強則榮弱 故以補榮 不可大 汗 傷血須半空心 時密室加衣靜坐 宜熱 服藥 得粘汗 卽止。

桂枝湯 治太陽傷風 衛實榮虛 自汗 頭痛 鼻鳴 項 強 乾嘔 噎噎惡寒 淅淅惡風 翕翕發熱 或熱多寒少 面色光 而不慘 煩躁 身痛 手足不冷 脈浮緩 寸大尺 弱者 宜如無汗 溺數 手足冷 不惡寒者 忌用夏月 誤 服麻桂 必發黃 發斑 狂悶 而死。

(4) 『東醫壽世保元』²⁹⁾

「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

[6-5] 論曰 張仲景所論 太陽傷風 發熱惡寒者 卽

少陰人 腎受熱 表熱病也 此證 發熱惡寒而 無汗者 當用 桂枝湯 川芎桂枝湯 香蘇散 芎 歸香蘇散 藿香正氣散 …… .

[6-11] 論曰 此證 其人如狂者 腎陽困熱也 小腹硬 滿者 大腸 寒也 二證俱見 當先其急 腎陽 困熱則 當用 川芎桂枝湯 黃芪桂枝湯 八物 君子湯 升補之 …… .

「少陰人 泛論」

[8-22] …… 少陰人 尋常間日 惡寒時 用川芎桂 枝湯 二三貼 則亦無不愈 又腹中實滿而 大 便硬 痞發者 亦可用巴豆。

川芎桂枝湯은 桂枝湯에 川芎, 蒼朮, 陳皮가 加味 된 處方으로 少陰人 鬱狂證에 사용된다. 解肌의 效能을 가진 桂枝湯에 '壯脾而外攘之力'의 藥性을 지닌 川芎, 祛濕의 效能을 가진 蒼朮, '錯綜脾氣之參伍 調'의 藥性을 가진 陳皮의 效能이 結合되어 완 성되었다. 李東垣의 補中益氣湯에 '壯脾而內守之 力'의 藥性을 지닌 當歸가 加味되어 亡陽初症에 사 용하는 少陰人 補中益氣湯이 만들어졌듯이, 張仲景 의 桂枝湯에 '外攘之力'의 藥性을 지닌 川芎이 加 味되어 鬱狂初症에 사용하는 川芎桂枝湯이 만들어 진 것이다.

『傷寒論』에서는 桂枝湯을 有汗에 사용한다. 『東 醫壽世保元』에서는 川芎桂枝湯은 無汗에 黃 桂枝湯 은 有汗에 사용한다고하여 汗出의 有無에 따른 處 方의 選擇을 명확히 해주었다. 『醫學入門』에서는 '解肌' 門에서 '解肌 微汗也. …… 不可大汗' 이라 하여 解肌를 微汗이라 한 바 있다.

桂枝湯은 『東醫壽世保元』에 와서 '發熱惡寒而無

27) 許浚 : 前揭書, p. 282, 380.

28) 李 : 前揭書, pp. 233-234.

29)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 前揭書, p. 444, 455.

汗者 當用 桂枝湯, 川芎桂枝湯 ……」이라 하여 無汗한 경우에 桂枝湯을 사용한다고 한 바 있다.

총괄적으로 川芎桂枝湯은 少陰人 脾局의 陽氣가 陰實之氣에 의해 鬱滯되어 있고 腎局의 陽氣 역시 困熱되어 있는 腎陽困熱의 경우에 桂枝湯의 解肌와 川芎의 外攘之力 및 補血의 效能으로 腎陽을 升陽益氣시킴으로써 惡寒, 發熱, 無汗을 主治하는 處方이라고 할 수 있다.

3) 八物君子湯

八物君子湯 人蔘 2錢 黃芪 白朮 白芍藥 當歸 川芎 陳皮 甘草灸 各 1錢 薑 3片 棗 2枚

原 八物湯은 人蔘, 白朮, 白茯苓, 甘草의 四君子湯과 熟地黃, 當歸, 川芎, 白芍藥의 四物湯이 합쳐진 八物湯에서 起源된 處方이다. 八物君子湯은 原來의 八物湯에서 白茯苓과 熟地黃이 제거되고, 黃와 陳皮가 첨가된 處方이다.

(1) 『素問病機氣宜保命集』³⁰⁾

治心肺虛損 皮聚而毛落 血脈虛損 婦人月水愆期方.

(2) 『醫壘元戎』³¹⁾

八物湯 當歸酒浸炒 川芎 白芍藥 熟地黃酒洗蒸 黃芪 甘草 茯苓 白朮 各 1兩 爲粗末 水煎服.

治婦人傷寒下後 飲食減少 血虛方.

(3) 『萬病回春』³²⁾ 「補益」

八珍湯 人蔘 白朮 茯苓 當歸 川芎 白芍 熟地黃 各 一錢 甘草灸 五分.

右 一劑薑棗煎服 加黃 肉桂 各 一錢 名十全大補湯.

治肝脾傷損 血氣虛弱 惡寒發熱 或煩燥作渴 或寒熱昏 或胸膈不利 大便不實 或飲食少思 小腹脹滿等證.

(4) 『東醫壽世保元』³³⁾

「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

[6-11] …… 腎陽困熱則 當用 川芎桂枝湯 黃芪桂枝湯 八物君子湯 升補之 …… 若外熱包裡冷 而毒氣重結於內 …… 當用 巴豆丹 下利一二度 因以藿香正氣散 八物君子湯 和解而 峻補之.

[6-12] 張仲景所論 下焦血證 卽 少陰人 脾局陽氣 爲寒邪所掩抑 而腎局陽氣 爲邪所拒 不能直升連接於脾局 鬱縮膀胱之證也. …… 此證 益氣而升陽則 得上策也 …… .

[6-13] …… 婦人 傷寒發熱 …… 此爲熱入血室 …… .

[6-14] 陽明病 口燥 但嗽水不欲嚥者 …… .

[6-15] 陽明病 不能食 攻其熱 必噎 傷寒 嘔多 …… 胃家實 不大便 若表未解 及有半表者.

[6-16] 論曰 右諸證 當用 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 八物君子湯.

[6-17] 張仲景 曰 陽明之爲病 胃家實也 問曰 緣何得陽明病 答曰 太陽病 發汗 若下 若利 小便者 此 亡津液 胃中乾燥 因轉屬陽明 不更衣 內實 大便難者 此 名陽明病也.

[6-18] 傷寒 轉屬陽明 其人 然微汗出也.

[6-19] 傷寒 若吐 若下後 不解 不大便 五六日至

30) 江克明·包明蕙: 校訂 方劑大辭典, 서울, 醫聖堂, p. 33, 1991.

31) 李東垣 外: 前掲書, p. 669.

32) 廷賢: 萬病回春, 서울, 서울精版社, p60, 1975.

33)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前掲書, pp. 444-448.

十餘日 日曙所發潮熱 不惡寒 狂言 如見鬼狀 若劇者 發則 不識人 循衣摸床 而不安 微喘直視 脈弦者 生 脈溢者 死

[6-20] 少陰人 太陽陽明病 自汗不出 脾不弱者 輕病也 大便雖硬 用藥易愈也 …… 用八物君子湯 升陽益氣湯 與巴豆丹 …… 太陽病 表證因在時 何不早用溫補升陽之藥 與巴豆 預圖其病 …… .

[6-26] …… 胃家實病 不更衣 發狂證 …… 先用 巴豆 後用 八物君子湯 以壓之

[6-48] 凡 少陰人 外感病六七日 不得汗解而死者 皆死於厥陰也 四五日 觀其病勢 用黃 桂枝湯 八物君子湯 三四五貼 豫防可也.

『素問病機氣宜保命集』에서는 皮聚而毛落到 사용하며, 血脈虛損으로 인한 婦人月水愆期에 사용하는 處方이라고 하였다. 原 八物湯의 構成藥材 중 甘草를 대신하여 黃芪가 들어간 점이 特異한 점이다.

海藏 王好古의 著書인 『醫壘元戎』에서는 八物湯 構成藥材 중 人蔘이 빠지고 黃芪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黃芪의 升陽作用을 重視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藥材의 配置에 있어서도 當歸, 川芎, 白芍藥, 熟地黃 등의 補血藥類를 앞에 위치시킨 것으로 보아 補氣의 作用보다는 補血의 效能을 重視한 處方으로 생각된다.

『萬病回春』의 八物湯은 藥材構成이 현재의 八物湯과 동일하다. 단지 藥材의 用量에 있어서 甘草를 5分으로 하였는데, 이는 補氣의 개념보다는 調和諸藥하는 意味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八物湯과 八物君子湯은 既存醫學에서 말하는 氣

血虛에 사용하는 處方으로 볼 수 있다. 『東醫壽世保元』에서는 少陽人 藥材인 熟地黃과 白茯苓을 甘草와 陳皮로 대신하여 陽氣不升의 鬱狂證 重症에 응용하고 있다. 八物君子湯은 升陽益氣의 效能을 가진 黃芪와 脾氣를 고르는 效能이 있는 陳皮가 본래의 八物湯에 加味되어 鬱狂證 處方으로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4) 藿香正氣散

(1) 『太平惠民和劑局方』³⁴⁾ 「治傷寒」

治傷寒頭疼 憎寒壯熱 上喘咳嗽 五勞七傷 八般風痰 五般膈氣 心腹冷痛 反胃嘔惡 氣瀉霍亂 臟腑虛鳴 山嵐 柶 遍身虛腫 婦人產前產後 血氣刺痛 小兒疳傷 宜治之.

(2) 『古今醫鑑』³⁵⁾ 「需亂篇」

治四時不正之氣 寒溫時疫 山嵐 氣 雨濕蒸蒸 或中寒腹痛吐利 中暑冒風 中濕身重泄瀉 或不服水土 脾胃不和 或飲食停滯 復感外邪 頭痛發熱 戰慄惡寒 或嘔吐惡心 膈膈滿悶 一切氣逆 不安之症 并能調治.

(3) 『醫學入門』³⁶⁾ 「傷寒用藥賦」

治內傷脾胃 外感寒邪 寒熱拘急 頭痛嘔逆 胸中滿悶 與夫傷食 傷冷 傷濕 中暑 霍亂 山嵐 瘴氣 不伏水土 寒熱如柶 並宜增損用之 非正傷寒之藥 若病在太陽 頭疼發熱 骨節痛者 此方 絕無相干 誤服反虛 正氣逆 其經絡 凡氣虛 及夾陰陽 寒俱不可用.

(4) 『東醫寶鑑』³⁷⁾ 「寒 傷寒 陰證篇」

治傷寒陰證 頭痛身疼 如不分表裏證 以此導引經絡

34) 宋 太平惠民和劑局 編, 劉景源 點校: 前掲書, p78.

35) 信: 古今醫鑑, 중국, 江西省新貨書店, p, 123, 127, 1990.

36) 李: 前掲書, pp.162-163.

37) 許浚: 前掲書, p. 386.

不致變動. 『古今醫鑑』

(5) 『東醫壽世保元』³⁸⁾

「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

(6-4) 龔信 醫鑑 傷寒 頭痛 身疼 不分表裏證 當用 藿香正氣散.

(6-5) 此證 發熱惡寒而 無汗者, 當用 桂枝湯 川芎桂枝湯 香蘇散 芎歸香蘇散 藿香正氣散…….

(6-6) 張仲景 曰 太陽病 脈浮緊 發熱 無汗而 者 自愈也.

(6-7) 太陽病 六七日 表證因在 脈微而沈 反不結胸 其人如狂者 以熱在下焦 小腹當滿 小便自利者 下血乃愈 抵當湯主之.

(6-8) 太陽證 身黃 發狂 小腹硬滿 小便自利者 血證 宜抵當湯 傷寒 小腹滿 應小便不利 今反小便自利者 以有血也.

(6-9) 太陽病 不解 熱結膀胱 其人如狂 血自下者 自愈 但小腹急結者 宜攻之 宜桃仁承氣湯.

(6-10) 太陽病 外證未除而 數下之 遂下利不止 心下 硬 表裏不解 人參桂枝湯主之.

(6-11) 若外熱包裡冷 而毒氣重結於內 …… 當用 巴豆丹 下利一二度 因以藿香正氣散 八物君子湯 和解而 峻補之.

(6-13) …… 婦人 傷寒發熱 …… 此爲熱入血室

(6-14) 陽明病 口渴 但嗽水不欲嚥者 …… .

(6-15) 陽明病 不能食 攻其熱 必 傷寒 嘔多 …… 胃家實 不大便 若表未解 及有半表者.

(6-16) 論曰 右諸證 當用 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 八物君子湯.

「少陰人 胃受寒 裡寒病論」

(7-11) 論曰 病發於陰而反下之云者 病發於胃弱者 當用 藿香正氣散而 …… 太陰證 下利清穀者 當用 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 薑朮寬中湯 溫胃而降陰 少陰證 下利清穀者 當用 官桂附子理中湯 健脾而降陰.

(7-12) 藿香正氣散 香砂六君子湯 寬中湯 蘇合元皆 張仲景瀉心湯之變劑也.

藿香正氣散의 藥材構成 및 用量的 文獻別 變化는 <표 17>로 정리할 수 있다.

藿香正氣散과 少陰人 表病證의 他 處方과의 차이점은 少陰人 氣血虛의 상태를 改善시키는 川芎, 當歸, 白芍藥 등의 補血藥이나 人參, 黃芪, 桂枝 등의 補氣藥이 구성을 이루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藿香正氣散이 虛證에 補益의 效能으로써 작용하는 處方이라기보다 氣血의 循環不全이나 陰陽升降 등 운행력의 상실을 重視한 處方이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표 17> 藿香正氣散의 藥材構成 및 用量的 文獻別 變化

文 獻	構 成
『太平惠民和劑局方』	藿香 1.5 紫蘇 茯苓 白芷 苦梗 厚朴 大腹 陳橘 白朮 半夏 甘草 1 薑3 棗2
『古今醫鑑』	藿香 2 紫蘇 1.5 茯苓 白芷 桔梗 厚朴 大腹 陳皮 白朮 半夏 甘草 1 薑3 棗2
『東醫寶鑑』의 『古今醫鑑』	藿香 1.5 紫蘇 1 茯苓 白芷 桔梗 厚朴 大腹 陳皮 白朮 半夏 甘草 0.5 薑3 棗2
『東醫壽世保元』	藿香 1.5 紫蘇 1 大腹 陳皮 白朮 半夏 甘草 1 薑3 棗2
藿香正氣散	蒼朮 桂皮 乾薑 益智 青皮 1

38)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 前掲書, pp. 444-445, 449.

藿香正氣散은 『太平惠民和劑局方』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었으며, 以後 文獻에서는 藥材의 구성은 동일 하였으며 藥材의 用量만이 증감되었다. 『東醫壽世保元』에 이르러서는 茯苓, 白芷, 桔梗, 厚朴의 藥材가 除去되고, 蒼朮, 桂皮, 乾薑, 益智仁, 青皮가 첨가되었는데, 茯苓은 少陽人 藥材이며 白芷와 桔梗은 太陰人의 藥材이며, 厚朴은 少陰人의 裏病證에 사용되는 藥材이므로 제외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歷代 文獻에 나타난 藿香正氣散의 特徵은 外感과 內傷을 同時에 主治한다는 점이다. 약간 다른 점이라면 『太平惠民和劑局方』과 『古今醫鑑』에서는 外感病의 主治症을 먼저 言及하였고, 『醫學入門』에서는 內傷病의 主治症을 먼저 言及하였다. 언급의 次序에서 어떠한 效能을 중시하였는가를 유추해 낸다면 『醫學入門』에서는 內傷의 效能을 『太平惠民和劑局方』과 『古今醫鑑』에서는 外感의 效能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5) 黃芪桂枝湯

黃芪桂枝湯 桂枝 3錢 芍藥 黃芪 各 2錢 白何首烏 當歸 甘草灸 各1錢 薑 3片 棗 2枚

(1) 『東醫壽世保元』³⁹⁾

「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

[6-5] 論曰 張仲景所論 太陽傷風 發熱惡寒者 卽少陰人 腎受熱 表熱病也. …… 發熱惡寒而有汗者 此 亡陽初證也 必不可輕易視之 先用 黃芪桂枝湯 補中益氣湯 升陽益氣湯 ……

[6-11] 論曰 此證 其人如狂者 腎陽困熱也 小腹硬滿者 大腸 寒也 二證俱見 當先其急 腎陽

困熱則 當用 川芎桂枝湯 黃 桂枝湯 八物君子湯 升補之 ……

[6-48] 凡 少陰人 外感病 六七日 不得汗解而死者 皆死於厥陰也 四五日 觀其病勢 用黃 桂枝湯 八物君子湯 三四貼 豫防可也

黃芪桂枝湯은 桂枝湯의 原方에 黃芪, 白何首烏, 當歸가 加味된 處方이다. 川芎桂枝湯과 마찬가지로 『傷寒論』桂枝湯에 3가지의 藥材가 加味되어 본래의 桂枝湯 效能과는 다른 主治症을 갖게 되었다. 두 處方은 각각 鬱狂證과 亡陽證을 主治하는데, 이는 無汗과 有汗의 病證을 다르게 인식하고 이에 따라 다른 藥材를 加味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歷代文獻에서는 黃芪의 效能을 補脾氣, 升陽固表, 止汗이라 하였는데, 固表止汗의 效能에서 미루어볼 때 既存醫學에서 黃芪가 氣虛를 主治한다는 것은 少陰人의 亡陽汗으로 인한 陽氣虛를 主治하는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이러한 效能의 黃芪와 當歸 및 白何首烏의 補血生精하는 效能이 본래의 桂枝湯에 결합되어 亡陽初症에 사용하는 黃芪桂枝湯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6) 補中益氣湯, 升陽益氣湯

升陽益氣湯은 補中益氣湯에서 비롯된 處方으로 생각되며, 이 두 處方은 處方名과 藥材構成에 있어서도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1) 『東垣十種醫書』⁴⁰⁾

「飲食勞倦所傷 始爲熱中論」

蓋陰火相衝 則氣高 喘而煩熱 爲頭痛 爲渴而脈洪. 脾胃之氣下流 使榮氣不得升浮 是春生之令不行 則無

39)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前揭書, pp. 357-358.

40) 李東垣 外: 前揭書, p. 87.

陽以護其營衛 則不任風寒 乃生寒熱 此皆脾胃之氣不足所致也.

2) 『東醫寶鑑』⁴¹⁾

「雜病篇 內傷 勞倦傷治法」

補中益氣湯 治勞役太甚 或飲食失節 身熱 而煩 自汗倦怠 …… 『東垣十種醫書』

凡脾胃不足之證 須用升麻 柴胡 引脾胃中清氣 行於陽道及諸經 生發陰陽之氣 故凡治脾胃 藥多以升陽補氣 名之者此也. 『東垣十種醫書』

3) 『古今醫鑑』⁴²⁾ 「內傷篇」

治中氣不足 肢體倦怠 口乾發熱 飲食無味 或飲食失節 勞倦身熱 脈大而虛 或頭痛惡寒自汗 …… .

4) 『東醫壽世保元』⁴³⁾

「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

(6-5) 論曰 張仲景所論 太陽傷風 發熱惡寒者 卽少陰人 腎受熱 表熱病也. …… 發熱惡寒而有汗者 此 亡陽初證也 必不可輕易視之 先用 黃 桂枝湯 補中益氣湯 升陽益氣湯.

(6-20) 少陰人 太陽陽明病 自汗不出 脾不弱者 輕病也 大便雖硬 用藥易愈也. …… 用八物君子湯 升陽益氣湯 與巴豆丹 …… 太陽病 表證因在時 何不早用溫補升陽之藥 與巴豆

預圖其病 …… .

「少陰人 泛論」

(8-9) 陽明 太陽之危者 獨參八物湯 補中益氣湯 可以解之 而病勢危時 若非日三四服而 又連日服則 難解也.

李濟馬가 새로 設定한 補中益氣湯과 升陽益氣湯의 藥材構成을 表로 만들면 <표 18>과 같다.

補中益氣湯과 升陽益氣湯에서는 黃芪, 人蔘, 甘草, 當歸가 다른 藥材에 比하여 多量으로 쓰이고 있다. 黃芪와 人蔘의 效能에 대하여 金⁴⁴⁾은 ‘人蔘과 黃芪는 모두 少陰人의 補氣하는 藥材이지만 各各의 性格에는 差異가 있다. 人蔘은 少陰人의 保命之柱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약간의 升陽作用이 있으나 그 주된 效能은 元氣를 大補하는데 있다. 黃芪 역시 補氣하는 藥이지만 元氣를 補益하기보다는 升陽으로 끌어올리는 效果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라고 한 바 있다. 人蔘과 黃芪는 少陰人 陽氣不足과 升陽失調의 病證에 사용되어 少陰人의 正氣를 扶助하여 주는 藥材라 할 수 있다. 人蔘과 黃芪는 補中益氣湯에서 3錢, 升陽益氣湯에서 2錢씩 사용되어 升陽益氣湯보다 補中益氣湯에서 더 많은 用量이 사용되고 있다.

升陽益氣湯 藥材構成의 特徵은 桂枝湯의 주된 藥材인 桂枝와 芍藥이 2錢씩으로 黃芪와 人蔘의 不足

<표 18> 補中益氣湯과 升陽益氣湯의 藥材構成

	黃芪	人蔘	甘草	當歸	桂枝	芍藥	白何首烏	官桂	白朮	陳皮	藿香	蘇葉	生薑	大棗
補中益氣湯	3	3	1	1	0	0	0	0	1	1	3-5	3-5	3	2
升陽益氣湯	2	2	1	1	2	2	1	1	0	0	0	0	3	2

41) 許俊: 前掲書, p. 434.

42) 信: 古今醫鑑, 중국, 江西省新貨書店, p. 90, 1990.

43) 李濟馬: 前掲書, pp. 444-445, 454.

44) 金一煥·金敬堯: 少陰人 補中益氣湯과 補中益氣湯에 대한 四象醫學의 比較 研究, 四象醫學會誌 8(2): 69-94, 1996.

된 用量을 補充하여 주는 듯한 構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處方構成은 升陽益氣湯을 비롯하여 附子가 사용된 모든 處方에서 보이고 있다. 즉, 黃芪桂枝附子湯, 人蔘桂枝附子湯, 升陽益氣附子湯이 그러하며 人蔘官桂附子湯은 桂枝를 의도적으로 除外하고 官桂의 用量을 3錢으로 增量하였다. 또한 白何首烏에 대해 조⁴⁵⁾는 '人蔘보다 비교적 升陽의 余力이 없는 경우에 사용하며, 肉桂는 升陽의 조건이 비교적 양호하지 않는 상태에 사용하므로 이들은 강력한 升陽의 效果를 발휘하는 藥材와 함께 사용되었는데, 表證에서는 人蔘, 當歸, 甘草와 裏證에서는 白朮과 함께 사용되었다' 라고 한 바 있다. 이로써 人蔘, 黃芪, 白何首烏, 肉桂 모두가 少陰人의 陽暖之氣를 強化시키며 升陽益氣시키는 藥材로 보인다.

補中益氣湯 藥材構成의 特徵은 白朮, 陳皮, 蒼香, 蘇葉에서 찾아볼 수 있다. 白朮의 藥性에 대해 조는 '健脾直脾는 人蔘의 補脾和脾의 次元을 제외하고는 적극적인 升陽의 개념이다. 白朮은 保命之柱의 余力이 어느 정도 有餘할 때 사용하고 또 단순히 陰實之氣의 除去만으로는 升陽이 일어나지 않는 少陰證에 사용한다' 라고 하였다. 白朮은 有汗 亡陽의 상태를 主治한다기 보다는 豫防하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亡陽證 處方에서는 白朮이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陳皮, 蒼香, 蘇葉이 歷代 本草書에서 언급된 것을 보면 陳皮는 理氣藥類로 蒼香, 蘇葉은 解表藥類로 分類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氣의 運行, 上升의 效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이들을 補中益氣湯에 사용한 의미 또한 陽氣의 상승을 중점을 둔 것으로 파악된다.

다.

총괄적으로 補中益氣湯은 『東垣十種醫書』와 『東醫寶鑑』의 '脾胃之氣不足所致也', 『古今醫鑑』의 '中氣不足' 등을 脾小한 少陰人의 陽氣不足證에 응용한 處方이며, 升陽益氣湯은 補中益氣湯의 陽氣를 補益하는 效能을 기본으로 하면서 有汗을 主治하는 桂枝湯의 藥材를 더함으로써 亡陽證에 升陽시키는 處方으로 완성되었다고 생각된다.

Ⅲ. 考 察

以上과 같이 少陰人의 病證을 鬱狂證과 亡陽證으로 區分하여 各 病證에 대한 認識過程 및 各 病證에 사용되는 藥材와 處方に 관하여 조사해 보았다. 少陰人의 病證은 鬱狂과 亡陽의 두가지 病證으로 區分하는 것 외에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도 있다. 첫째, 順證의 단계로 鬱狂證과 亡陽證 初症에 해당되는 太陽病證과 둘째, 逆證의 단계로 鬱狂證과 亡陽證 重證 및 末證에 해당되는 陽明病證과 셋째, 蔘萸湯證, 人蔘吳茱萸湯證에 해당되는 太陽病 厥陰證의 세 단계로 區分할 수도 있다⁴⁶⁾. 이와는 다르게 藥材의 效能에 따라 구분한다면 첫째는 蒼香, 蘇葉 등의 解表之劑를 사용하는 脾局陽氣不升의 表證 初期 단계이며, 둘째는 人蔘, 白朮 등을 사용하는 腎局陽氣가 脾局에 不連接하는 단계이며, 셋째는 黃芪를 사용하는 경우로 陽氣外泄의 단계이며, 넷째는 肉桂, 附子를 사용하는 陽氣欲絶의 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既存醫學에서는 人體 正氣의 虛實과 外部 邪氣의 盛衰에 의하여 疾病의 상황을 파악한

45) 조황성 : 前揭書, pp. 21-44.

46) 洪淳用 · 李乙浩 : 上揭書, p. 168, 173.

다. 한편 四象醫學에서는 各 體質의 保命之柱를 重視하여 外部 邪氣의 盛衰보다 正氣의 進退強弱에 초점을 맞추어 疾病의 順과 逆을 판단한다. 治法에 있어서도 各 體質의 保命之柱인 少陰人의 陽暖之氣, 少陽人의 陰清之氣, 太陰人의 呼散之氣, 太陽人의 吸取之氣의 強化를 疾病 治療의 주된 目標로 삼는다⁴⁷⁾. 특히 少陰人 表病은 陽暖之氣의 不足에 의한 陽氣不升이 病의 原因이므로, 溫補升陽에 의하여 손상된 陽氣를 보충함으로써 陽氣를 上升시키고 寒邪를 제거하여 무너진 陰陽升降의 均衡을 회복시키는 方法을 위주로 하고 있다.

少陰人 表病證에 대한 인식의 대부분은 『傷寒論』에서 이루어졌는데, 鬱狂證은 太陽病 및 陽明病의 下焦血證, 熱入血室, 熱在下焦, 胃家實 등 人體 下部에서 나타나는 熱證에 해당되는 병증이다. 『傷寒論』에서는 이러한 熱證을 邪氣가 亢盛하여 발생한 實熱로 보았으며, 破血, 逐血의 作用을 가진 抵當湯, 桃仁承氣湯, 大承氣湯 등의 處方을 사용하였다. 반면에 『東醫壽世保元』에서는 下焦 熱證을 陽氣不足에서 기인된 陽氣不升을 病證의 原因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益氣升陽의 治法은 上策이라 하였고, 破血, 解熱의 治法은 下計라고 하였다⁴⁸⁾. 즉, 『傷寒論』에서는 鬱狂證에 대한 病證認識은 있었으나 이를 正氣가 아닌 邪氣 위주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升陽益氣의 治法을 강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醫鑑書』, 『丹溪心法』, 『醫學入門』 등에서도 鬱狂證에 대한 病證認識은 있었으나 犀角升麻湯合小柴胡湯, 抵當湯, 抵當丸 등의 處方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正氣보다는 邪氣 爲主로 病證을 파악한 것

으로 보인다.

총괄적으로 鬱狂證에 대한 病證認識과 治法은 『東醫壽世保元』에 와서야 비로소 少陰人 腎大脾小의 상황을 인식함으로써 川芎桂枝湯, 八物君子湯, 藿香正氣散 등의 升陽益氣시키는 處方을 창안하였다고 할 수 있다.

少陰人 亡陽證은 『黃帝內經』에서부터 언급된 病證이다. 『黃帝內經』이후로 많은 文獻들에서 汗出과 亡陽에 대해 이야기하였는데, 그 중 『傷寒論』의 ‘汗多亡陽 下多亡陰’⁴⁹⁾이라는 말은 體質 概念은 없었으나 少陰人의 汗多 亡陽證과 少陽人의 亡陰證 泄瀉와 유사한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다. 『傷寒論』에서는 亡陽으로 인한 大便不通에 桂枝 또는 附子之類를 사용하였는데, 附子를 사용한 것은 『東醫壽世保元』 少陰人 表病의 陽氣가 欲絶하려 하는 證에 附子를 사용하여 溫補升陽의 治法을 강구한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體質 概念은 없었으나 病證의 認識과 治法은 『東醫壽世保元』과 일치하는 면이 있었던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東醫壽世保元』과 다른 治法을 사용한 경우도 볼 수 있는데 胃腸의 燥熱로 인한 大便不通에 大承氣湯 또는 小承氣湯을 사용하여 變證을 유발시킨 경우가 그 예라 할 수 있는데, 이는 外部의 症狀 개선에 치중한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傷寒論』에서 變證에 대한 많은 治法과 處方이 제시된 것도 病證의 體質에 따른 差異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합한 藥材가 투여되어 辨證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東醫寶鑑』에서는 亡陽에 대해 ‘汗多亡陽에는 마땅히 止汗法을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이

47) 金鍾悅：前揭書, p. 127-153.

48)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위음：前揭書, p. 444.

張仲景所論 下焦血證 卽 少陰人 脾局陽氣 爲寒邪所掩抑 而腎局陽氣 爲邪所拒 不能直升連接於脾局 鬱縮膀胱之證也。…… 此證 益氣而升陽則 得其上策也 破血而解熱 則出於下計也。”

49) 張仲景：前揭書, p. 122, 141, 220, 230, 239.

는 升陽益氣의 治法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할 수 있다. 즉, 歷代文獻을 보면 汗出로 인해 亡陽證이 발생된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體質과 病證을 동시에 파악하여 治法을 구사하지는 않았으며, 臟腑의 大小偏差 및 陰陽升降의 문제로 病理를 파악하고 升陽益氣의 治法을 사용한 것은 『東醫壽世保元』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少陰人 表病證은 陰陽升降의 病理이며 특히 陽氣不升이 그 기전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중심으로 藥材를 구분한다면, 첫째는 發散, 解表의 作用으로 表部까지 藥性を 상승시켜 주는 桂枝, 藿香, 蘇葉으로 이는 陽氣 未損傷의 表證 初期에 해당되며, 둘째는 升陽作用으로 陽氣를 升發시켜주는 川芎, 蒼朮이며, 셋째는 少陰人의 陽氣虛를 扶助하여 주는 人蔘, 白朮이며, 넷째는 肉桂, 附子로 이는 陽暖之氣 欲絶의 시기로 나누어볼 수 있다.

少陰人 表病證에 사용되는 이상의 藥材들은 다음 몇 가지의 공통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파악되는데, 첫째, 少陰人의 消化器疾患을 主治하는 效能을 가지고 있다. 桂枝, 川芎, 當歸, 黃芪, 人蔘, 藿香, 蘇葉 등 少陰人 藥材는 溫性이 있어서 少陰人의 脾小의 약점을 보완하여 주는 效能과 동시에 陽氣不升으로 발생하는 下焦의 冷한 病證을 해결해 줄 수 있는 效能도 가지고 있다. 둘째, 陽氣의 上升을 돕는 效能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脾局의 陽氣가 不升하거나 腎局의 陽氣가 脾局에 連接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鬱狂證과 外部로 陽氣가 새어나가는 亡陽證 등의 少陰人 病證에 사용되는데 이는 升陽益氣의 效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少陰人 表病證의 處方은 鬱狂證에 사용되는 芎歸香蘇散, 川芎桂枝湯, 八物君子湯, 藿香正氣散과 亡陽證에 사용되는 黃桂枝湯, 補中益氣湯, 升陽益氣湯 등이 있다.

芎歸香蘇散은 『太平惠民和劑局方』의 香蘇散에서

출발하여, 『世醫得效方』에서 蒼朮, 生薑, 蔥白이 加해진 것을 『東醫壽世保元』에서 當歸와 川芎이 加味되어 완성된 處方이다. 內守之力的 藥性を 가진 當歸와 外攘之力的 藥性を 가진 川芎이 香蘇散 原方に 加味되어 陽氣補益과 陽氣上升의 方向으로 새롭게 고안된 處方으로 생각된다.

川芎桂枝湯은 『傷寒論』 桂枝湯을 母方으로 하여 川芎, 蒼朮, 陳皮를 加한 處方이다. 『傷寒論』 桂枝湯은 太陽病表證이 未除하고 有汗할 경우에 응용되는 處方이며, 川芎桂枝湯은 太陽病表證이 未除하고 無汗할 경우에 쓰는 處方이다. 桂枝湯 본래의 適應證은 無汗의 病證이 아니라 오히려 有汗의 病證인 것이다. 그러나, 川芎, 蒼朮, 陳皮가 加味됨으로써 無汗의 鬱狂證을 主治하는 川芎桂枝湯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이들 세 가지의 藥材가 加味됨으로써 升陽作用을 가진 川芎桂枝湯이 만들어지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八物君子湯은 『萬病回春』의 八物湯을 母方으로 하여 白茯苓, 熟地黃이 除去되고 黃芪와 陳皮가 加味된 處方으로 鬱狂證 重證에 사용한다. 少陰人 藥物인 白茯苓 과 熟地黃 대신에 少陰人 藥材인 黃芪, 陳皮가 加味되었다. 모든 藥材는 體質別로 區分되어 있으며 이들은 서로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는 原則이 지켜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藿香正氣散은 『太平惠民和劑局方』의 藿香正氣散에서 출발하였는데, 厚朴, 桔梗, 白芷, 白茯苓은 除去되고, 靑皮, 桂枝, 乾薑, 益智仁, 蒼朮을 加한 處方이다. 太陰人, 少陽人의 藥材는 除去하고 少陰人의 陽氣上升과 陽暖之氣의 생성을 돕는 藥材를 加하여 升陽益氣의 效能을 강화시킴으로써 鬱狂證에 사용할 수 있는 處方으로 새롭게 창안된 것으로 생각된다.

黃芪桂枝湯은 『傷寒論』의 桂枝湯에 黃芪, 白何首烏, 當歸가 加해진 것이다. 有汗의 表病에 사용하

는 桂枝의 解肌하는 效能과 外泄하는 陽氣를 固表 止汗의 效能으로 主治하는 黃芪가 결합되어 亡陽證 初期에 사용하는 黃芪桂枝湯이 완성된 것이다. 川芎桂枝湯과 黃芪桂枝湯은 모두 桂枝湯에서 출발한 處方이나 加味된 藥物에 의해 有汗과 無汗의 서로 다른 主治症을 가지게 되었다.

補中益氣湯은 『東垣十種醫書』에서 李東垣에 의해 創造되어 少陰人의 中氣虛弱에 사용된 處方인데 李濟馬에 의해 少陰人의 陽氣不足과 허약한 消化機能에 적합하도록 새롭게 창안된 處方이다. 같은 亡陽證 處方인 升陽益氣湯에 비해 人蔘과 黃芪가 비교적 多量으로 쓰여진 것으로 보아 升陽益氣湯에 비해 陽氣補益의 效能이 主가 되며 藿香과 蘇葉을 사용하여 健胃 및 解表作用까지도 의도한 處方으로 생각할 수 있다.

升陽益氣湯은 補中益氣湯과 桂枝湯의 效能을 함께 겸비한 處方으로 볼 수 있다. 補中益氣湯에 비하여 人蔘과 黃芪의 용량이 적다. 有汗에 사용하는 桂枝湯의 解肌作用을 주된 效能으로 하고 黃芪, 人蔘, 當歸, 甘草를 사용함으로써 元氣를 補益하는 補中益氣湯의 效能까지도 함께 겸비한 處方으로 생각된다.

IV. 結 論

以上과 같이 歷代 文獻을 통하여 少陰人 表病證의 病證, 藥材, 處方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既存醫學의 辨證體系는 八綱, 五行, 經絡에 依據하여 疾病을 把握함으로써 時代 및 醫家에 따라 辨證이 유행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四象醫學의 辨證體系는 四臟의 陰陽

升降의 病理로 把握함으로써 疾病의 認識에 있어서 일관성을 기할 수 있었다.

2. 少陰人 表病證은 汗出의 有無에 따라 鬱狂證과 亡陽證으로 區分할 수 있다. 이 들 病證認識의 대부분은 『傷寒論』에서 이루어졌으며, 體質 概念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일부의 病證認識과 治法은 『東醫壽世保元』과 일치하는 면이 있었다.
3. 少陰人 表病證은 腎大脾小에 의한 陽氣不升이 病의 原因이므로, 溫補升陽에 의하여 손상된 陽氣를 보충함으로써 陽氣를 上升시키고 寒邪를 제거하여 무너진 陰陽升降의 均衡을 회복시켜주는 治法을 사용해야 한다.
4. 少陰人 表病證에 사용되는 藥材는 공통적으로 첫째, 升陽益氣의 效能이 있어 陽氣의 上升을 돕는 效能을 가지고 있으며, 둘째, 溫性에 의하여 少陰人의 陽暖之氣를 補益함으로써 消化器疾患을 主治하는 效能을 가지고 있다.
5. 少陰人 表病證에 사용되는 藥材는 陽氣 未損傷의 初期 表證단계에 發散, 解表의 作用으로 表部까지 藥性を 상승시켜 주는 桂枝, 藿香, 蘇葉의 부류와 升陽作用으로 陽氣를 升發시켜 주는 川芎, 蒼朮의 부류와 少陰人의 陽氣虛를 扶助하는 人蔘, 白朮의 부류와 陽暖之氣가 欲絶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肉桂, 附子의 네 부류로 大別할 수 있다.
6. 少陰人 表病證 處方의 대부분은 『傷寒論』을 비롯한 宋·元·明 歷代醫書의 處方을 母方으로 하여 設定되었다. 少陰人 處方 設定의 원칙은 保命之柱인 陽暖之氣를 強化시키는 것과 體質別 藥材 區分을 명확히 하여 他 體質의 藥材를 少陰人의 藥材로 대체하였다는 것이다.

參 考 文 獻

1. 江克明·包明蕙：校訂 方劑大辭典，서울，醫聖堂，1991.
2. 江蘇新醫學院：中藥大辭典，서울，成輔社，1982.
3. 信：古今醫鑑，중국，江西省新貨書店，1990.
4. 廷賢：萬病回春，서울，서울精版社，1975.
5. 郭靈春 編著：黃帝內經 素問校注語譯，서울，醫聖堂，1993.
6. 郭靈春 編著：黃帝內經 靈樞校注語譯，서울，醫聖堂，1993.
7. 郭子光，瀉顯孫 編著：傷寒論湯證新編，上海科學技術出版社.
8. 金晷壽：標準本草學，서울，進明出版社，1975.
9. 宋一炳：알기쉬운 사상의학，서울，하나미디어，1993
10. 宋 太平惠民和劑局 編，劉景源 點校：太平惠民和劑局方，중국，人民衛生出版社，1985.
11. 辛民教：原色臨床本草學，서울，南山堂，1986.
12. 元持常：四象醫學新篇，서울，綜合義苑社，1974
13. 危亦林 著：世醫得效方，欽定四庫全書 子部五醫家類14，서울，大星文化史，1995.
14. 李道耕：家庭必備 四象要覽，익산，圓佛敎出版社，1995.
15. 李東垣 外：東垣十種醫書，서울，大星文化社，1983.
16. 李濟馬：東醫壽世保元，서울，麗江出版社，1992.
17. 李濟馬：東醫壽世保元，서울，杏林出版，1993.
18. 李：醫學入門，서울，大星文化社，1981.
19. 張仲景：仲景全書，서울，大成出版社，1984.
20.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四象醫學，서울，集文堂，1997.
21. 朱肱：原本 增注類證活人書，서울，南山堂，1987.
22. 中國中醫研究院：正統 金匱要略，서울，醫學研究社，1987.
23. 蔡仁植：傷寒論譯詮，서울，高文社，1991.
24. 韓東錫：東醫壽世保元註釋，서울，誠理會出版社，1967.
25. 許俊：東醫寶鑑，서울，南山堂，1983
26. 洪淳用·李乙浩：四象醫學原論，서울 杏林出版，1995.
27. 金敬堯：李濟馬의 醫學史觀에 대한 考察，四象醫學會誌 6(1)：15-18，1994.
28. 金龍國：亡陽，亡陰에 對한 證治醫學과 四象醫學과의 比較 考察，四象醫學會誌 3(1)：79-88，1991.
29. 金一煥，金敬堯：少陰人 補中益氣湯과 補中益氣湯에 대한 四象醫學의 比較 研究，四象醫學會誌 8(2)：69-94，1996.
30. 宋一炳：四象人 體質證과 體質病證의 成立過程에 對한 研究，四象醫學會誌 6(1)：71-80，1994.
31. 宋一炳：李濟馬 哲學의 學問의 背景과 四象醫學의 成立에 對한 考察，四象醫學會誌 3(1)：1-8，1995.
32. 조황성：四象方劑 構成의 分析研究，四象醫學會誌 7(2)：21-44，1995.
33. 河萬秀：汗을 中心으로 한 體質病證에 對한 考察，四象醫學會誌 5(1)：131-138，1993.
34. 洪性範，金敬堯，洪淳用：東醫壽世保元 醫源論을 중심으로 醫學史에 關한 研究，四象醫學會誌 4(1)：159-170，1992.